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5

제44권 제1호 통권 49호

함석태 특집호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1889-?)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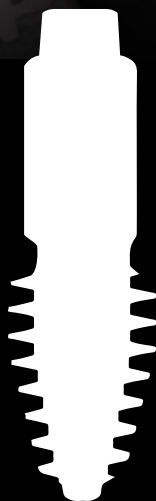
1960년 10월 7일 창립

EXTREMELY
THIN RIDGE
OK!

LOCAL BONE
DEFECT
OK!

SEVERE
PERIODONTITIS
OK!

이모든게
극한의 난케이스도



3달만에?
ARI[®]로 쉽게 해결!

ISSN 1226-9638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5

제44권 제1호 통권 49호

大韓齒科醫史學會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1960년 10월 7일 창립



<표지그림 설명>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1889-?)

Painted by 오혜경 작가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의사학회 제17대 회장 권훈입니다.

대한치과의사학회는 1960년 10월 7일 창립된 이후 올해로 6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이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가 창립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5년 학술대회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를 기억하며’라는 주제로 6분의 연자를 모셨습니다.

임상 강의로 국산 Flowable composite의 진화 과정, 임플란트 개발 및 연구에 참여한 치과의사의 회고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소아치과 개원의 역사를 조망하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강의, 안면성장의 과학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한 강의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소개하는 함석태의 미술품 사랑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학회지는 함석태 특집으로 함석태 가족의 사회적 활동, 일제강점기 고미술품 수장가 함석태, 대한민국 치의학 선구자 함석태, 어린이를 위한 함석태 위인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2025년 학술대회와 학회지 발간을 위해 수고해주신 대한치과의사학회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23일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장 권 훈

목 차

함석태 가족의 사회적 자선활동	1
권훈(Kweon, Hoon)	
일제강점기 고미술품 수장가 치과의사 함석태	13
김상엽(Kim, Sangyeop)	
대한민국 치의학 선구자 함석태	25
변웅래(Byun, Woong-Rae)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문화유산을 지키다!	39
김영란(Kim, Yeongran)	

함석태 가족의 사회적 자선활동

권 훈

Kweon, Hoon

서론

함석태의 출생 및 부친 함영택의 사회적 지위

함석태의 부친 함영택의 사회 활동 및 독립운동 지원

함석태의 독립운동 지원

함석태의 독립운동가 치과치료

함석태의 강우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함석태의 사회 활동

함석태의 가족 사항

함석태 가족의 사회적 자선활동

미래아동치과 원장
권 훈

ABSTRACT

Seok-tae Ham was the first Korean professional dentist. He qualifi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s a key founding father of dentistry in Korea. The current status of dentists in Korea can only be considered with recognition of the ceaseless efforts of such Korean dentist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 trust that we, too, are dentists who serve the country and use our knowledge to treat our patients with the same consideration and honor shown by pioneers like Seok-tae Ham. For his immense contributions to dentistry in Korea, he should thus be researched, his merits recorded, and he, as a highly influential Korean dentist, commemorated.

서론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와 같은 해에 태어난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 1889-1977)은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고 했다. 함석태의 인생을 살펴보니 찰리 채플린의 명언과 비슷한 것 같다. 함석태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한국인 최초의 치과 개원의, 대한민국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단체인 한성치과의사회 초대 회장 등 대한민국 치의학 역사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함석태는 일제의 소개령으로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간 이후 그의 행방은 묘연하고, 그의 생몰연대도 미완성이다. 본 고에서는 함석태와 그의 가족들의 사회적 자선 및 봉사 활동을 기록을 기반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본 원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5년 제63권 8호(258-268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함석태의 출생 및 부친 함영택의 사회적 지위

함석태는 1889년 12월 25일 평안북도 영변군 오리면 세죽리에서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다¹⁾. 그의 본관은 강릉 함씨 희천파이다. 부친은 함영택으로 성균관 진사의관(進士議官)의 관직을 지냈다고 한다. 진사는 벼슬이름이 아니고 과거 진사와 등과자(登科者)임을 지칭하는 말이므로, 함영택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올랐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다만 구한말의 관직명인 ‘의관’은 그가 훗날에 얻은 직책이 아닐까 한다. 함석태의 집은 지방의 재력에 기반을 둔 향반내지 토반 계층으로 추측이 된다. 어쨌든 이런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난 함석태는 매우 유복하고 순조로운 성장과 배움의 길을 걸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 당시로서는 비교적 생소한 학문인 치과의학을 공부한 것도 그의 이러한 가정적 배경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함석태의 부친 함영택의 사회 활동 및 독립운동 지원

다음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함석태의 부친 함영택은 교육과 사회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의 민족의식과 고향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²⁾.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사립 승덕학교는 1908년 미국 선교회에서 설립하여 다수의 인재를 양성해 왔는데, 1922년 경비 부족으로 유지가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에 영변군에 거주하는 유지들이 힘을 합하여 쇠퇴하는 교운을 만회하고 고등보통학교로 변경하기 위해서 교사 증축비 마련과 기부금 모집을 위하여 발기인회가 결성되었다. 발기인 대표 10인에 함석태의 부친 함영택이 포함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 교육회는 조선총독부에 대학 설립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지들 사이에서 직접 대학을 설립하자는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조선 교육회의 이상재는 1923년 3월 20일 ‘조선 민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하여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로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벌였다. 1923년 140여 개 군에서 650여 명의 발기인 승낙서가 모집되었다. 함영택은 평안북도 영변군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³⁾. 1920년 11월경에 10명이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조직한 비밀 결사단체인 대한청년단은 중국 랴오닝성 관전현(寬甸縣)에 근거지를 둔 독립단 본부와 서로 연락을 통하며 독립운동활동을 하였다. 대한청년단 단원인 한병건은 군자(軍資) 모집을 맡고 있었는데, 1920년 12월 28일경에 영변군 오리면 세죽동 함영택으로부터 군자금 100여원을 수령하였다. 1921년 11월 20일 평양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검사는 한병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판결 언도는 11월 25일에 열린다. 동아일보 1921년 11월 20일자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⁴⁾. 1924년 1월에는 군자 모집원을 사칭한 강도가 함영택의 집에 들어와서 돈을 강탈하여 함영택이 오십원을 주었다는 기사도 있다(그림 1)⁵⁾. 이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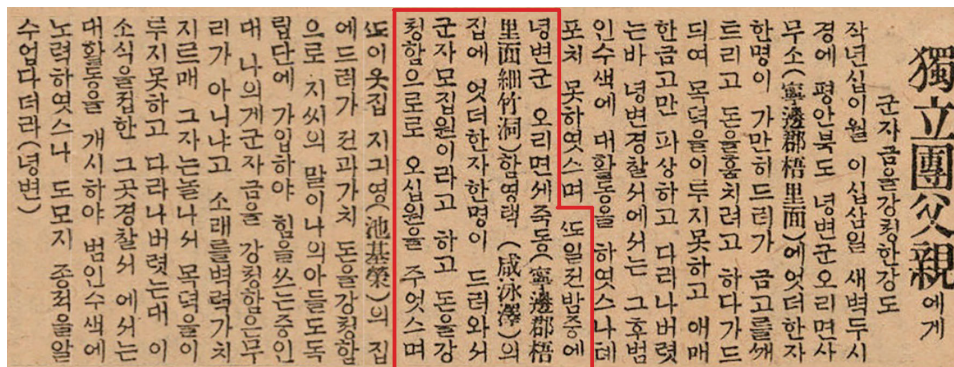


그림 1. 함석태 부친 함영택이 독립단에 군자금 전달(동아일보 1924년 1월 14일)

함석태의 부친 함영택이 독립운동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물이 존재한다. 1926년 조선에 개설되는 20개 산업조합 중에서 한 개가 영변에 설치되는데, 영변산업조합창립 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함영택은 감사로 참여하였다⁶⁾. 1926년 3년제의 영변공립 농업학교를 5년제의 농교로 승격하여 달라는 학년 연장 승격 운동이 영변에서 시작되었다. 대표자중한 명인 함영택은 평안북도 당국에 진정을 하였다⁷⁾. 또한 함영택은 승격운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천원의 회사금을 전달하였다⁸⁾. 함영택은 1931년 4월 19일 평안북도 영변군 오리면 세죽리 자택에서 별세하였다(그림 2)⁹⁾. 함석태가 일제강점기 구강위생 계몽운동과 무료 진료 봉사에 열정적으로 개최하고 참여하였던 것은 부친의 이러한 활동이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함석태의 독립운동 지원

1920년 8월에 미국 의원단이 경성을 방문할 때에 소요를 일으키고 남대문 정거장에서 조선총독, 총감 이하 친일파 등을 암살할 계획으로 암살단이 만들어졌다¹⁰⁾. 거사를 실행하기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미리 발각되어 한우석 등 21명이 체포되어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었다. 21명중에 조만식(1883-1950)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암살단의 취지서와 경고문 등을 제작하고자 작성된 원고를 받은 김화룡은 1920년 8월 상순에 시내 삼각정 함석태의 집에서 류숙하고 있던 조만식을 찾아갔다. 함석태의 집에서 암살단의 계획을 보고하고 암살단 취지서의 인쇄를 주선하여 달라고 조만식에게 요청하였다. 1921년 11월 16일 암살단 사건 판결에서 조만식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¹¹⁾.

조만식은 함석태의 부친인 함영택과 친교가 있었다. 아마도 함석태는 부친의 요청으로 조만식이 함석태의 집에서 잠시 머문 것으로 추측된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의 증언에 의하면 함석태 치과의원 건물은 2층 목조 건물로 지하실이 있었다고 한다. 건물 입구에 진료실이, 그 안쪽에 살림집이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조만식은 이곳에서 독립운동을 모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함석태(1889-?)보다 연배가 더 높으나 서로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은 고향이 평안도(조만식 평남 강서군, 함석태 평북 영변군)이고, 일본 동경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렇기에 서로 통하는 점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함석태도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기록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다만 1923년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함석태 치과 광고 내용에 주목이 간다(그림 3). 병후요양중약에서라는 뜻은 “병을 앓고 요양중이어서 간략한 예를 표하니 사정을 살피어 용서해 주세요”라는 의미다. 혹시 함석태가 치과를 휴업하면서까지 요양하게 된 이유가 조만식이 함석태의 집에서 암살 계획을 세운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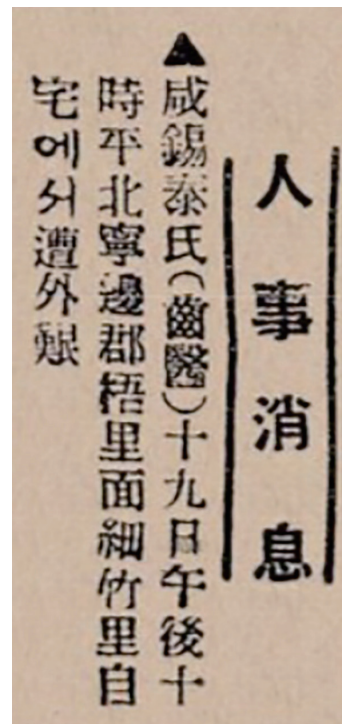


그림 2. 함석태 부친 함영택 별세 (조선일보 1931년 4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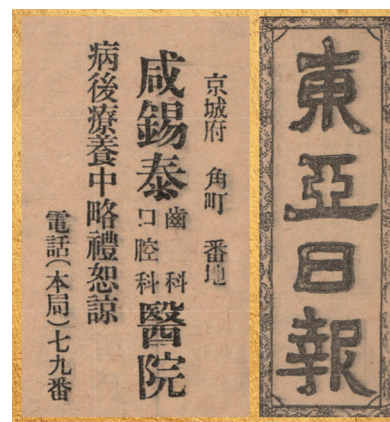


그림 3. 함석태가 병을 앓고 요양중임을 알리는 광고(동아일보 1923년 1월 4일)

함석태의 독립운동가 치과치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다. 함석태가 바로 그런 분이다. 함석태가 안창호 치과 치료를 위해서 유치장에까지 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그림 4).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좀 더 자료를 찾아보았다. 동아일보 1932년 7월 16일 기사에 안창호 선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함석태 선생님의 열정적인 치료 덕분에 3개월 만에 단단한 음식도 드셨다고 한다(그림 5). 이러한 소식은 치과의사에게 가장 보람된 일이다. 함석태 이름 석자는 주요한의 안도산전서, 잡지 동광(1932), 윤치호의 일기에서도 언급된다¹²⁾.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면 도산 안창호는 1932년 4월 29일 상해에서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이 유필 집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의 치아 상태는 상, 하악 전치부 6개만 잔존된 상태였다¹³⁾. 상해 영사관에 구금상태로 한 달 동안 있을 때 상해에서 개원중인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인 이무상 치과의사에게 부분 틀니 치료를 받았다. 조선으로 이송되어 경기도 경찰부에 있을 때 틀니가 부러져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이번에는 함석태 선생이 유치장으로 매일 출장하다시피 하여 안창호에게 틀니 치료를 하였다.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서 경무국 미와의 배려로 함석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유치장으로 돌아가는 안창호를 만났다고 회고하였다¹⁴⁾. 안창호의 치아를 치료했던 사람은 왜 함석태였을까? 1932년 조선에 치과의사는 수십 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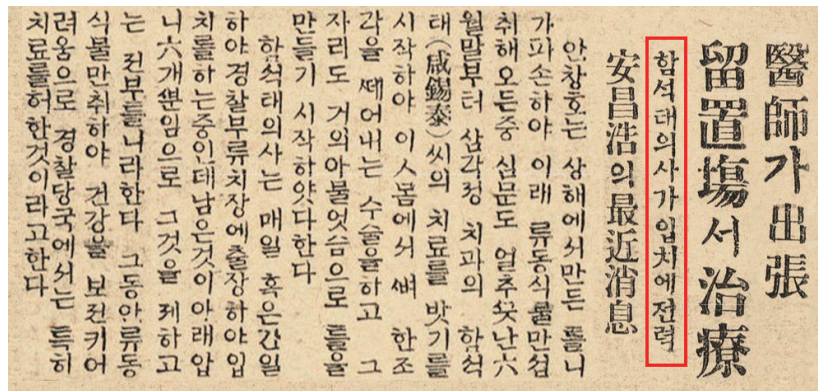


그림 4. 함석태는 유치장으로 출장을 가서 안창호 치과 치료를 함(동아일보 1932년 7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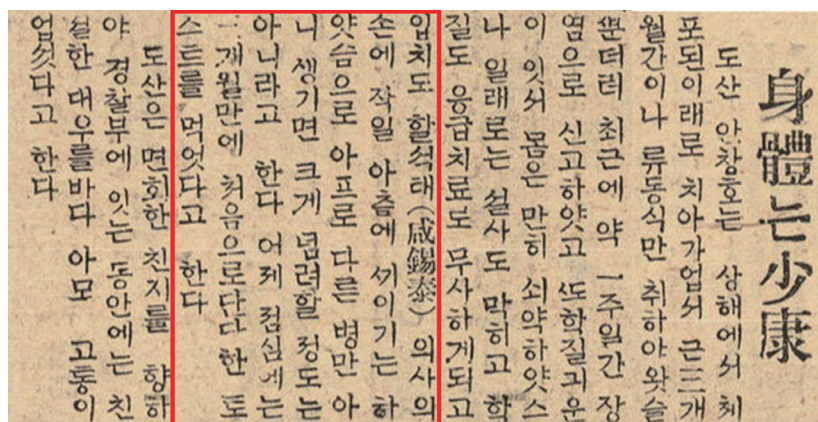


그림 5. 치과 치료 덕분에 안창호 선생이 단단한 음식도 드심(동아일보 1932년 7월 16일)

있었는데 왜 함석태였을까?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이러한 호기심은 1927년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서 바로 해결되었다. 오랫동안 치통으로 고생한 김약수(1893-1964)는 치과의사로 명성이 자자한 함석태로부터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장 치료를 받았다. 그 덕분에 치통은 완치되었고 입치까지 하여 매우 건강한 모습을 찾았다고 한다(그림 6). 아마도 이러한 인연으로 함석태가 다시 출장 진료를 하여 안창호 치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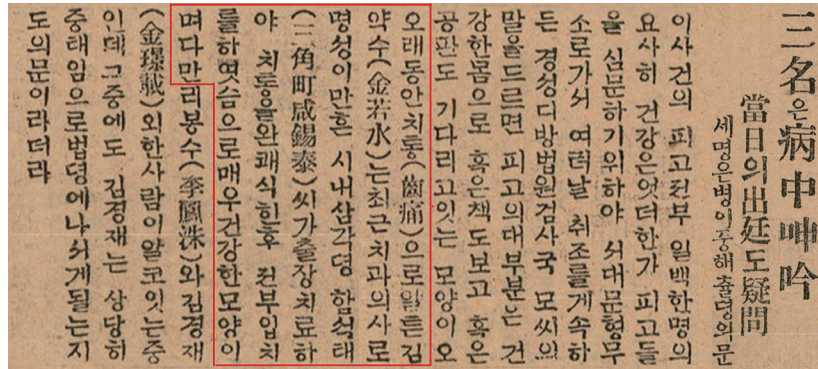


그림 6. 독립운동가 김약수의 치통을 치료한 함석태(동아일보 1927년 9월 10일)

함석태의 강우규 독립운동가 후손 지원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최초로 제공한 사람은 독립운동가 강우규(1855-1920) 의사의 손녀인 강영재다. 1985년 치과임상 편집인과 함석태의 손자 함각, 강영재의 아들 채수철의 만남이 있었다. 이 자리에 채수철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이다(그림 7)¹⁵⁾. 사진을 구하게 된 과정은 변영남 선생님의 치의신보(2304호) 기고에 잘 설명되어 있어 그대로 옮겨본다¹⁶⁾. “함석태 선생님 사진을 구해달라는 간곡한 요청 끝에 출처를 찾기 시작했다. 본인은 혈혈단신으로 내려와 아무것도 없었다. 강우규 의사 손녀 강영재를 데려다 기르셨다는 점에 착안하여 찾기 시작했다. 강우규 의사 독립운동 연금 수령자를 추적한 결과 채수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강영재의 아들로 목사 신분이었다. 만나기 2개월 전에 강영재(강우규 손녀)는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 함석태 친척이 찾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한다. 진짜 손자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사진의 인물을 알아맞히는가를 테스트한 후 넘겨받게 되었고 현재 소장하고 계신다고 증



그림 7. 함석태와 독립운동 강우규의 손녀 강영재(1936년경 촬영된 함석태 사진) 출처: 치과임상 1985년 6월호

언했다.” 필자는 혹시나 함석태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독립운동가 강우규의 손녀 강영재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13세 강영재의 글씨 ‘인고(忍苦)’가 1923년 1월 1일자 조선일보에 실렸다. 신문 설명에는 고강우규씨 손녀 강영재라고만 소개되어 있다. 어떻게 13세 소녀의 붓글씨가 조선일보에 실릴 수 있었을까? 1923년 서울에 온 13세 강영재를 양녀로 키운 함석태의 주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론이다. 1954년 조선일보에 실린 ‘일우 강우규 의사의 추억 손녀 강영재 여사의 수기’에 의하면 만주에서 거주했던 강영재는 7세 때부터 할아버지 강우규로부터 글과 붓글씨 공부를 배웠고 매일 한자(漢字)를 붓글씨로 써서 습자첩을 문들기도 하였다¹⁷⁾. 또한 강우규 의사가 길림성 요하현에 설립한 광동(光東)학교 현판 글씨도 강영재가 쓴 글씨였다고 회고하였다. 따라서 1923년 신문에 실린 강영재의 글씨 ‘忍苦’에는 강우규 의사와 그 가족들의 삶이 함축적으로 녹아들어 있다. 1959년 동아일보 ‘열사의 후예들’ 연재 기사에 강우규 의사의 며느리 최집손 여사와 강영재 인터뷰 내용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¹⁸⁾. 강영재의 아버지 강건하는 1936년 만주 연길에서 별세하였고, 강영재의 형제로는 언니가 두 명(강복섬, 강복동) 있었다. 강영재의 어머니 최집손 여사는 1945년 광복되던 해 신의주의 강영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딸과 함께 월남하여 줄곧 수원에서 농사기술원장등을 지낸 사위 채병석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강영재는 이화고녀를 졸업한 후 경남 함양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1972년 강우규 의사 52주기를 맞아 조선일보에 강영재 여사 인터뷰 기사가 있다¹⁹⁾. 이 인터뷰에 의하면 강영재는 6세때부터 3년 동안 강우규 의사와 함께 생활했다고 회고하였다. 그녀는 13세 때 아버지 강건하와 함께 서울에 왔고, 서대문 신사리 공동묘지에 묻힌 강우규 의사 묘소를 처음으로 찾아뵈었다고 하였다. 강영재는 이화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였고, 첫 봉급을 받았을 때 할아버지 묘소에 작은 비석을 세웠다고 하였다. 1954년, 1959년, 1972년 3개의 신문에 실린 강영재의 회고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923년 13세 강영재는 만주에서 이주하여 아버지 강건하와 어머니 최집손과 함께 서울 생활을 시작하였다. 조선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투여한 강우규 의사의 가족들이었기에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특히 아버지 강건하가 1936년 만주 연길에서 사망한 이후로는 더욱 더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함석태는 강영재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으며 음으로 양으로 강영재를 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기록을 바탕으로 필자가 추론을 동원하여 소설을 써본다. 강우규의 고향은 평안북도 덕천군이고, 함석태의 고향은 평안북도 영변군이다. 강우규와 함석태는 서로 평안북도 동향 출신이다. 아마도 강우규는 함석태보다는 함석태의 아버지인 함영택과 서로 친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이 된다. 따라서 함석태는 1923년 강영재 가족이 서울로 온다는 소식을 아버지 함영택으로부터 듣고, 또한 강우규 후손들을 잘 보살피라는 부탁도 받았다. 함석태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강영재의 가족을 보살폈고, 강영재가 이화고등보통여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강영재는 동경제국대학 농업경제학과를 1932년 졸업한 채병석(蔡丙錫)과 결혼을 하였다. 어쩌면 강영재와 채병석의 결혼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함석태이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해 보인다. 졸업 후 조선으로 돌아온 채병석은 1932년 조선총독부 기술직 관리인 기수(技手)로 채용되어 평안북도에서 5년 동안 근무하였다. 아마도 이때 강우규 의사의 며느리 최집손 여사가 채병석과 결혼한 강영재의 신의주 집에서 함께 지냈던 것 같다. 광복 후 채병석은 농작물 개발을 연구하는 수원 농사시험장에서 농사기술원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때 강영재와 함께 월남한 최집손 여사도 딸집에서 거주하였다. 채병석은 1960년대 농협 부회장까지 역임하였다.

함석태의 사회 활동

엄혹한 시기였던 1920년 12월 조선일보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기 기사가 있다. 세밀 한파에 장교통 근처 다리 밑에 40세가량 되는 걸인이 6-7세 어린 아들을 안고 어찌할줄 모르는 비참한 모습이 행인의 눈에 띄었다. 그는 친구들과 걸인의 구제방법을 논의한 결과, 지인의 집에 있는 빈방을 제공하였고, 수십 명의 지인들이 모금을 하여 걸인에게 전달하였다. 그 지인의 명단에 함석태가 포함되었고, 함석태는 일원(현재 13만원)을 기부하였다²⁰⁾. 함석태는 고학생(苦學生)구제회에도 육십원(현재 780만원)의 동정금을 보냈다²¹⁾. 이처럼 함석태는 일제강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는데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에 진행된 조선 총독부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조선 농민들이 소작화가 됨으로써 그들은 더욱 착취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무렵에 수많은 조선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였다. 1921년 북간도 용정촌에 조선인 자녀의 중등교육기관인 사립 대성중학교가 설립되었다²²⁾. 그러나 학교를 유지하는 경비가 곤란하여 기부금 모집을 구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기에 되었다. 1923년 조선일보에 대성중학교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람들의 명단이 게재되었는데, 함석태는 10원(현재 130만원)을 기부하였다²³⁾. 1921년 용정촌에 건립된 대성중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대성중학교는 일제강점기 만주 지역에 설립되었던 여러 개의 학교와 통합되어 현재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에 있는 용정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정중학교 교사앞에는 이 학교 동문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 시비가 세워져 있다. 윤동주의 서시 구절을 읽는데 함석태 선생의 마음이 상상된다. 그는 일제강점기 그에게 주어진 길을 깨끗하게 걸어간 인물이다. 1922년 4월 경성부 낙원동에 사립서북협성학교가 개교하였다. 본래 이 학교는 1905년 황해도와 평안도 등 서북 출신 애국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서우사범학교가 그 시초다. 그러나 1910년 한일 강제병합 후 교명이 오성학교로 개칭되었다가 1918년 민족적 불온사상의 온상이라는 죄목으로 일제의 의해 강제 폐교되었다가 1922년 3월 정규 학교로서 중등과와 초등과로 나누어 520명 신입생을 모집하는 학교로 재탄생되었다. 함석태는 협성학교의 기본 재산을 세우는데 1000원(현재 1억3천만원)을 기부하였다²⁴⁾. 1922년 개교한 협성학교는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져 오늘날 서울 광신중학교와 광신상업고등학교로 발전했다. 1928년 관북(함경도) 지역에 심각한 수재가 발생하여 전국 각지에서 관북 수재 동포 의연금 모금운동이 펼쳐졌다. 함석태의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군 오리면 세죽동 주민들은 자진하여 수재 의연금을 모아서 경성에 개원중인 함석태에게 수해 구제에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전달하였다. 이에 함석태는 고향 주민들이 자신에게 보내온 의연금을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의연금 납부자 명단을 기사에 공개하였다(그림 8). 이 기사를 통해서 함석태 고향 주민들이 얼마나 함석태를 신뢰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또한 함석태는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역사적 기록물로 남겨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의연금 납부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함석태의 고향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보인다. 함석태는 1929년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포를 돕기위한 성금 운동에도 동참하였다²⁵⁾. 일제강점기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남강 이승훈(1864-1930)의 영결식이 1930년 5월 16일 사회장으로 열렸다. 남강 이승훈은 평안북도 정주 태생으로 1907년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애국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조선교육협회 창설 멤버로 참여하여 사회사업에도 열심이었던 그는 3.1운동 때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33인중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또한 1924년 조만식과 함께 물산장려운동을 주동하였다. 남강 이승훈은 함석태와 평안북도 동향이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조만식과 절친한 사이이다. 함석태가 남강 사회장 부의금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²⁶⁾.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치과 의사 함석태의 명성은 1월호, 2월호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지난 호에서 누락된 자료 두 가지를 소개한다. 계명구락부는 함석태와 윤백남을 초청하여 1932년 10월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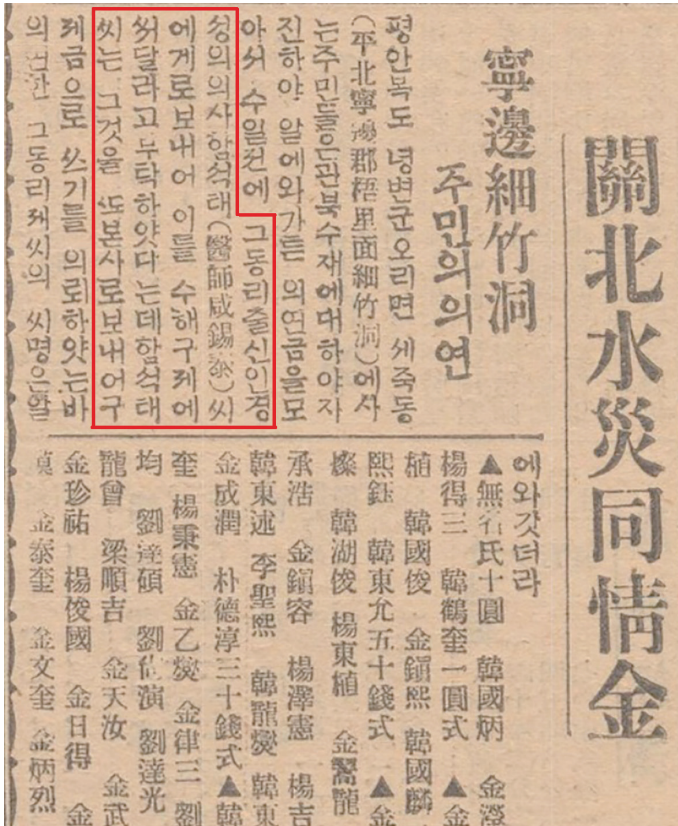


그림 8. 함석태는 고향 주민들과 함께 관북 수재 동포 의연금 전달(조선일보 1928년 10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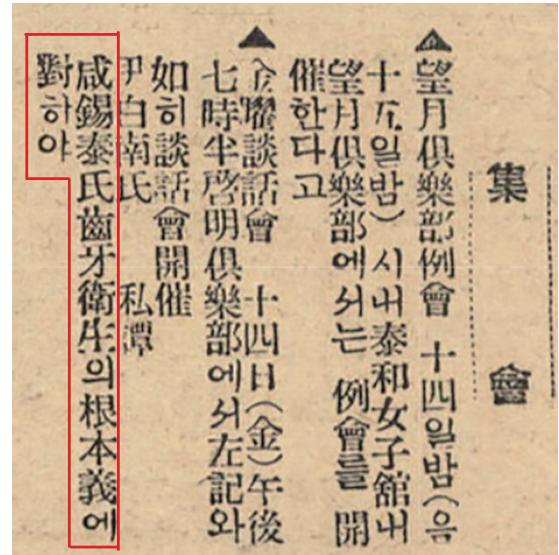


그림 9. 함석태는 ‘치아 위생의 근본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동아일보 1932년 10월 14일)

일 오후 7시 30분 금요담화회를 개최하였다(그림 9). 윤백남(1888-1954)은 사담(私潭), 함석태는 ‘치아위생의 근본의에 대하여’라는 연제로 강연을 하였다. 윤백남과 함석태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일본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학을 하였다. 둘째, 일제강점기 함석태는 치과계에서, 윤백남은 근대 문화 발전에 초석을 쌓은 인물이다. 셋째, 두 사람 모두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윤백남은 1923년 최초의 한국영화 ‘월하(月下)의 맹서(盟誓)’를 제작하였다. 함석태에게 강연 요청을 한 계명구락부는 최남선, 오세창, 박승빈 등 그 당시 지식인 33명이 발기하여 1918년 1월 17일 서울에서 설립된 애국계몽단체이다. 민족계몽과 조선의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로서 일상생활의 개선, 잡지와 서적의 발행, 강연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하였다. 특히 오세창은 함석태에게 고미술품 수집에 입문하도록 권유한 인물이다. 특히 도자기를 좋아한 함석태에게 ‘토선(土禪)’이라는 호를 준 사람이 바로 오세창이다. 따라서 함석태는 계명구락부 회원들과 친분이 꽤 깊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함석태는 윤치호가 주도적으로 1933년 9월 14일 창립한 조선우생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전체 발기인 85명중 의사가 25명이었는데 그중에 치과 의사로는 함석태가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85명 발기인중에 30명은 항일민족주의 운동단체인 흥업구락부 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선우생협회는 민족의 독립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현실 순응적 상류층 중심의 운생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지식인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단체의 성격이 불확실함에도 함석태는 자의인지 타의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참여하였다. 함석태는 1943년 11월 7일 서울 YMCA에서 윤치호의 진두하에 조직된 ‘학병제 경성익찬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학병 권유를 위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참전을 권유하고, 권유문 발송, 학병 권유 학부형 간담회, 학교 강연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특히 윤치호는 1943년 학

병동원이 시작되자 “조선학도들에게도 내지(內地, 일본)동포들과 어깨를 겨누어 싸움터로 나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 열렸다”며 학도들에게 총출진을 촉구하였다. 함석태가 이 단체에 참여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함석태가 이름을 올렸던 ‘조선우생협회’처럼 윤치호의 권유에 의해 경성익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된다. 어떤 단체에 단순히 참여했던 것만으로 친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어쩌면 함석태 일제강점기 안창호와 윤치호의 중간 지점에 서있던 많은 지식인 중 한 명이라 생각된다.

함석태의 가족 사항

함석태는 이일녀와 결혼해 1남(함철훈), 2녀(함순정, 함문희)를 두었다. 1936년 대경성공직자 명감에 나온 함석태의 가족 사항을 보면 어머니(64세), 부인, 장남과 장녀만 기입된 것으로 보면 함순정은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함석태의 흔적 찾기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동아일보 1938년 8월 황해도 장수산 등반 기행문에서 함석태와 그의 딸 함문희양이 동행한 사실을 발견하였다(그림 10). 함석태의 딸과 아들 이름으로 인터넷에 검색한 결과 함석태의 장녀 함문희가 1938년 경성공립고등여학교(현 경기여고)에 입학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중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육군 전투기를 ‘애국기’, 해군 전투기를 ‘보국기’로 지칭하며 비행기 헌납 운동을 벌였다. 헌납(獻納)이란 자발적인 희사 행위를 말한다. 일본은 각 지역에 다양한 단체를 동원하여 모금 운동에 동참하도록 했다. 외형은 자발적인 형태를 띠었지만 모금은 강제적이었다. 1938년 2월 21일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이러한 기사가 있다. 지난 사변으로 인하여 평안북도 당국으로부터 국방비행기 조성안이 발표되자 영변군 각 면 인사들도 자발적으로 비행기 헌납금을 거출하였다. 함석태의 고향 평안북도 영변군 오리면에서도 함철훈 외 6명이 95원을 헌금하였다²⁷⁾. 아마도 함석태의 아들 함철훈도 영변군 오리면의 유지였음을 추측할 수 있는 기록물이라 생각된다.



그림 10. 50세 함석태 선생과 딸 함문희(24세)양이 황해도 장수산 등반 (동아일보 1938년 8월 20일)

다. 함석태의 아들 함철훈은 5남매를 두었다. 함진과 함옥은 어렸을 때 사망하였고, 함완은 1965년 무렵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함순은 경관으로 근무하다 한국전쟁 때 실종되었다. 함석태의 유일한 혈육은 손자 함각이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이 1985년 치과임상과의 인터뷰와 2015년에 변영남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사 편찬위원장과 좌담회를 통해서 함석태의 해방 이후 행방이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져 있다. 함석태는 1944년 9월 혹은 10월경(함각의 기억) 자동차 3대 분량의 자신의 소장품을 꾸려서 고향 영변에 도착하였다. 그는 아들 함철훈의 집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새로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 기거하면서 집도 풀지 않은 채 거의 1년간 정세의 추이를 관망하였다. 해방 후 3.8선이 점점 굳어지자 함석태는 서울로 가기 위해 집을 싣고 부인과 딸과 함께 해주로 향했다. 그가 황해도 해주를 택한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량의 골동품의 운반 때문으로 추

정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주로 간 이후 함석태의 행방은 현재까지도 묘연하다. 1946년 3월 북한에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토지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함석태 일가는 토지와 가옥을 몰수당한 채 철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수난을 겪게 된다. 이로부터 1년여 후 함석태의 큰 손자 함완과 함순이 철원에서 월남하여 할아버지 함석태가 계시리라 믿었던 삼각동 치과를 찾았으나 함석태는 그곳에 없었다. 맏손자 함완은 동생 함순을 서울에 남겨둔 채 다시 3.8선을 넘어 영변으로 돌아갔다. 함완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월남을 시도하려 했으나 공산정권에 체포되어 좌절되고 말았다. 함석태 가족들은 북한에서 한국전쟁을 겪었고 이 기간에 함석태의 아들 함철훈이 사망하였다. 1951년 함완과 함각은 1.4 후퇴 때 원산에서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여 피난 생활을 하였다. 1952년 무렵에 함완 가족과 함각이 서울에 와보니 함석태 치과 자리에 삼각동 동사무소가 간판까지 붙은 채로 있었다. 이 자리는 우리 할아버지 함석태의 집이라고 주장하니 빨갱이 집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반환을 거절하였다. 함석태 맏손자 함완은 자신의 결혼식 때 뵈었고 치과에서 할아버지와 바둑을 뒀던 장태상을 생각해 찾아뵈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장태상을 몇 번의 면담 신청 끝에 만남을 가졌고 그의 도움으로 할아버지 함석태의 집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함완은 북한에서 체포되었던 당시 심한 고문으로 몸을 상한데다 부산에서 피난 시절 부두에서 노동 중 부상을 당해 적지 않은 나날을 와병으로 보냈다. 그 후 또 뇌를 다쳤던 함완은 생활고로 함석태 치과터를 팔고 익선동으로 이사하였다. 함각이 군대에 있을 무렵 함완은 사망했다고 한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의 가족사진이 치과임상에 실려 있는데 1985년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가정하면 4명의 증손자 나이는 40대에서 50대정도 될 것 같다(그림 7). 함석태의 손자 함각은 2017년 2월 ‘함석태 선생 개원 100주년 기념 흉상 제막식’에 참석하였고, 함석태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었다(그림 11). 함각은 2023년 87세의 나이에 별세하였다. 2025년 4월 11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함석태의 증손녀 함주현이 참석하여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그림 12). 함석태는 일제강점기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업인으로 살아간 인물이었다. 그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애국자였다. 그와 같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치과의사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의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지금의 위상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함석태가 가졌던 당당한 치과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도 국가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는 치과의사가 되었으면 한다. 함석태는 우리 치과계에서 위대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치과계가 해야 할 일은 함석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림 11. 함석태 선생 개원 100주년 기념 흉상 제막식 모습(치의신보 2487호)



그림 12.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한 함석태 증손녀 함주현

참고문헌

1. Lee Hansoo : Dentistry Naturalis Historia, Seokamsa, 1976
2. 영변중학기성: Dong-A Ilbo, 1922.10.29.
3. 백사십여군에서 : Dong-A Ilbo, 1923.02.20.
4. 평안양도 참의단 : Dong-A Ilbo, 1921.11.20.
5. 독립단 부친에게 : Dong-A Ilbo, 1924.01.14.
6. 영변산업조합 : Dong-A Ilbo, 1926.11.14.
7. 승격운동맹렬 : Dong-A Ilbo, 1926.12.10.
8. 영변공농교 : Dong-A Ilbo, 1928.11.10.
9. 인사소식 : Dong-A Ilbo, 1931.04.22.
10. 독립운동을 계획한 한우석 등 : Dong-A Ilbo, 1921.06.25
11. 암살단 사건의 판결 : Dong-A Ilbo, 1921.11.16.
12. 안도산의 입치, 잡지 동광 제36호, 1932
13. 주요한 : 안도산 전서, 삼중당, 1963
14. 윤치호 : 윤치호 일기, 역사비평사, 2001
15.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스토리, 치과임상 6월호, 1985
16. 변영남 :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손자 함각을 만나다, 치의신보 제2304호, 2015
17. 일우 강우규의사의 추억 손년 강영재 여사의 수기(상), The Chosun Ilbo, 1954.04.05.
18. 열사의 후예들, Dong-A Ilbo, 1959.11.26.
19. 강영재 인터뷰, The Chosun Ilbo, 1972.11.29.
20. 결인의 구제방법, The Chosun Ilbo, 1920.12.26.
21. 동정금, The Chosun Ilbo, 1921.06.22.
22. 간도의 청년을 위하여, Dong-A Ilbo, 1922.05.12.
23. 대성중학교에 기부금, The Chosun Ilbo, 1923.11.14.
24. 협성학교 재단법인 기성의 근황, The Chosun Ilbo, 1924.05.31.
25. 수재구제금, The Chosun Ilbo, 1929.06.17.
26. 남강 사회장 부의금, Choongwae Ilbo, 1930.05.19.
27. 영변지방 총후 조성, Dong-A Ilbo, 1938.02.21.

〈교신저자〉

- 권 훈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일제강점기 고미술품 수장가 치과의사 함석태

김 상 엽
Kim, Sangyeop

서론

‘소물진품대왕(小物珍品大王)’ 함석태의 미술품 수집 성향

함석태의 수장품

맺음말

일제강점기 고미술품 수집가 치과의사 함석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김 상 엽

ABSTRACT

Dentist Seoktae Ham was one of the leading collectors of Korean ancient ar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possessing thousands of such artifacts. According to newspaper records, he participated in seven exhibitions, loaning some 32 works of calligraphy, paintings by 14 Korean artists, and the Joseon Dynasty Ceramics Collection Volume 15, which contained photographs and descriptions of his 15-piece celadon and blue-and-white porcelain collection. Although these are only a part of his overall collection, Seoktae Ham's outstanding knowledge and aesthetic sense of Korean antiquities can be sufficiently observed by his collection choices. This collection can be considered a national treasure as he was especially fascinated by the aesthetics of ancient items, particularly small items and art pieces of unusual shape. Seoktae Ham's collection of ancient art pieces was chosen not for economic reasons, but for their immense cultural value.

서론

함석태(咸錫泰: 1889~?)는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정규교육을 받은 후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이자 최초의 치과 개원의이다. 평안북도 영변의 부유한 집안 출신인 함석태는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현 일본 치과대학)를 1912년에 졸업하고 1913년 말까지 도쿄에 머문 후 귀국했고, 1914년 2월 5일 조선총독부 치과의사면허를 받은 후 치과의사면허 제1호로 등록되었다. 함석태가 당시로서는 생경한 학문 분야인 치과의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것은 경제적

본 원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5년 제63권 8호(270-279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으로 대단히 유복했던 가정환경과 사회사업에 힘쓰는 등 ‘개화(開化)’한 집안이었기에 선진 학문 분야를 습득하는데 큰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함석태의 손자 함각(咸珪)은 자신의 집안과 가세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¹⁾.

“대단한 부호였음에 틀림없다. 소작을 주는 전토도 많아서 고향에서는 남의 땅을 밟지 않고 다닐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증조부 함 진사(함영택)는 재산이 많은 만큼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등 소위 ‘사회사업’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조부 함석태 선생이 일본에 유학까지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독립운동가이자 종교인·시민사회운동가인 함석헌(咸錫憲: 1901-1989) 선생의 만년을 모신 서지학자 김영복 문우서림 대표는, “함석헌 선생께서 강의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함석태라는 분이 계시는데 골동품을 많이 모았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회고했다(2025.5.14.). 함석헌은 함경북도 용천 출신이었고 부친 함형택은 한의사였던 것을 보면, 지역과 성명 등의 측면에서 함석태 일가와와 가계적 연결도 미루어 짐작되는 일면이 있다.

1914년 6월 19일경 경성 삼각정 1번지 부근 옛 제창국(濟蒼局) 자리 동쪽에 함석태 치과의원을 신축한 후 개업했다(그림 1). 함석태는 1919년 이후 일본에 유학했던 다른 치과의사들이 귀국하여 개업하기까지, 일본인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조선은 그의 ‘독무대’였다²⁾. 그는 보철 등 치과 일반을 보면서 구강외과에 주력하다 1925년에 경성 치과의학교에서 첫 졸업생이 배출되자 우리나라 치과의사 7명을 규합하여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선치과의사회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소외되자 우리나라 사람만의 치과의사회를 조직한 것인데, 이러한 경향도 그의 민족의식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함석태는 충치 예방 등에 관한 글을 ‘동아일보’에 기고하고, 치아 위생에 관한 좌담회 등에 참여하는 등 특히 구강위생 계몽 활동에 힘을 쏟았다²⁾. 일제강점기 당시 치과의사로서 함석태의 위상은 도산 안창호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김약수(金若水: 1893-1964) 등의 치과 치료를 했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3,4)}. 함석태는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로서만 유명했던 게 아니고 조선총독부가 신뢰할 수 있는 치과의사였음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 경성 삼각정 1번지 부근에 자리한 함석태 치과

1936년 경성일보사에서 펴낸 ‘대경성공직자명감(大京城公職者名鑑)’은 당시 47세인 함석태에 대한 기본적 자료와 취미사항, 인물평 등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특히 그의 취미와 특기가 “서화, 분재, 여행, 하이쿠(俳句), 골동, 꽃꽂이, 특히 전다(煎茶)를 좋아함”이라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성향이 다분히 일본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 한편 1919년 9월 2일 오후 5시 남대문역(서울역)에서 사이토 미노루(齋藤實) 총독을 저격했던 강우규(姜宇奎: 1855-1920)의사의 어린 손녀 강영재를 함석태가 맡아 키워 이화여전까지 졸업시켰다는 사실을 특기할 만하다(그림 2). 이 사실은 한성치과의사회를 설립한 것과 함께 그의 민족의식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예로 여겨진다. 또한 그는 1930년 5월 19일 사회장으로 치러진 남강(南崗) 이승훈의 장례식에 부의금 5원을 쾌척했고, 1943년 11월 7일에 박흥식, 예종석, 윤치호, 한상룡 등 총 90여 명과 함께 서울 YMCA에서 학병제 경성익찬위원회를 조직하는데 참여했다.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일본 유학까지 마쳤으나 그는 총독 암살을 시도한 민족운동가의 손녀를 거두어 키우고, 우리나라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치과의사협회를 조직했지만 실생활에서는 일본식 생활풍습과 취미를 가졌으며, 학병 모집에 참여하는 등 일제의 시책에 충실히 협조하며 살아갔다. 함석태의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삶의 양태는 친일이나

극일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혼란스러운 삶의 단면이 아닐까 싶다.



그림 2. 함석태 가족의 사진. 오른쪽 앞의 소녀가 강우규 의사의 손녀 강영재로 추정된다.

‘소물진품대왕(小物珍品大王)’ 함석태의 미술품 수집 성향

의사학(醫史學) 연구자들은 함석태의 고미술품 수집을 강우규 의사의 손녀를 거두어 키운 것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일면이라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다. 그는 일제강점기 주요 수집가의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우수한 고미술품을 많이 소장했던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고미술품을 소장하게 된 동기는 분명하지 않다. 함석태는 앞에서 보았듯이 서화, 골동 외에도 하이쿠, 분재, 꽃꽂이, 전다 등 일본적 취미를 가졌는데 이런 유의 취미가 고미술품 수집 활동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⁶⁾.

함석태의 고미술품 소장 활동에 대해서는 그와 교류했던 인사들, 특히 그가 드나들었던 장택상(張澤相)의 집에서 이루어진 모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모임은 당대 최고의 수집가들로 이루어진 동호인 그룹으로, 일종의 ‘살롱’이라 할 수 있는 장택상의 집에 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은 고미술품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감식안을 보증하는 예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초반, 장택상의 집에서 이루어진 모임은 우리 근대 고미술품 소장가 유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33년 장택상이 대구에서 경성 한복판 수표동으로 이사한 후 그의 집은 고미술품 소장가들과 호사가들의 주

요한 모임 장소가 되었다. 당대의 부호이자 탁월한 국제 감각, 능란한 외교력, 뛰어난 감상안을 갖춘 장택상의 집은 동호인들의 일종의 공동 회합 장소였다. 당시 장택상의 사랑방에 모이던 고미술품 수집가들은 초대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윤치영(1898-1996), 치과의사 함석태, 한성은행 두취(은행장)를 지낸 한상룡의 동생인 서화 수집가 한상억, 서화가 이한복, 배화여중 교장을 지낸 이만규(1882-1978), 화가 도상봉(1902-1977)과 이여성, 서예가 손재형, 의사 박병래 등이었다.

함석태는 문학가로 유명한 상허(尙虛) 이태준(李泰俊)과도 교유하는 등 당시 경성의 명사 가운데 하나였다⁷⁾. 백자 수집가로 유명한 박병래는 “함 씨는 그 열성이 하도 대단해서 심지어 기인(奇人) 소리를 들을 정도의 일화를 남긴 분”이라고 기억할 정도로 함석태의 고미술품에 대한 집착과 애정은 컸다. 박병래는 함석태가 “성품이 온아하고 다감한 인정을 가진 분”으로 언급하고, “그는 실로 감읍할 정도로 골동에 애착을 가졌던 분(경제적 타산과 관계없이) 함 씨가 골동에 들인 정성은 정혼을 기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 저녁 신들인 사람처럼 골동을 부비며 애완하는 모습은 일견 사기 그릇의 반질반질한 땃물黽黽의 표면을 뚫고 왕래하는 전신의 소작인 것 같기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⁸⁾. 또 함석태는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도자기로 만든 바늘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 모았”고, 박병래의 아버지가 “한번은 함석태 씨를 보고 ‘함 선생, 골동을 하면 망한다는데 어떻소’하고 물으니가 함씨가 ‘그야 서화를 하면 망한다지만 골동은 안그래요’라고 대답했다”고 전한다. 이 일화를 통해 함석태가 서화보다는 도자기 등 공예품을 많이 수집한 연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⁸⁾. 박병래도 그의 조언으로 가짜를 판명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함석태의 감식안은 탁월했다.

함석태의 고미술품 수집에 대한 화상(畵商) 오봉빈의 ‘소물진품대왕’이라는 유머러스한 평이야말로 그의 치밀한 성품과 소장품의 성향에 대한 정확한 표현으로 여겨진다. 오봉빈은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미술기획자로 조선미술관을 경영했다.

토선(土禪) 함석태씨야말로 모든 일을 썰 틈 없게 하는 이다. 소 털을 쏘아서 제 구멍에 쏘는 이가 있다면 아마 함씨라 할 것이다. 이가 모은 서화 골동 전부가 다 기기묘묘하고도 모두가 실적인 물건뿐이다. 이모저모로 보아도 좋은 물건뿐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무호 이한복씨 수장품은 함씨가 유사할 것이 있다. 요모조모로 이 기기묘묘하며 소품이면서도 대물 거품을 능가할 만한 - 간단히 말하면 조선에서는 소물진품대왕이라⁹⁾.

사학자 손진태가 1935년 8월 1일에 발간된 잡지 ‘삼천리’ 제7권 제7호에 쓴 ‘문예(文藝) 민예수록(民藝隨錄)’에 “삼각정 함석태씨가 민예품 중에도 특히 목공품을 수집하신다는 말을 위창(오세창) 선생으로부터 듣고 한 번 찾아갔으나 불행히 만나지 못했다”고 한 것을 보면 함석태의 고미술품 수집 취미는 당시 경성의 식자층 사이에서 익히 알려졌던 것으로 여겨진다¹⁰⁾. 함석태는 고미술품 수집에 대한 몇 가지 일화를 갖고 있다. 이 일화들은 그의 고미술품에 대한 애착과 함께 당시의 시대상과 수집 방식 등의 일면을 알 수 있게 해준다⁸⁾.

함석태는 금강산 연적을 지극히 아껴 꼭 싸가지고 다니다가 일본에 갈 때도 반드시 휴대하고 다녔다. 부산에서 연락선을 탈 때 일본 형사에 의해 추궁을 당했지만 여러 번 왕래하는 동안에 소문이 나서 금강산 연적만은 검사를 받지 않을 정도로 잘 알려지게 되었다.

어느 날 원남동 부근을 거닐던 함석태는 달구지에 실린 이삿짐 끝에 메어 달린 옛날 장롱을 보고 달구지가 들어가는 집을 끝까지 쫓아갔다. 그는 목공예에도 상당한 식견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장을 골동을 넣어두는 장으로 쓸 심산이었다. 장롱의 주인이 쌀가게를 차리자 매일 곧 한 되씩 쌀을 사던 함석태는 그를 미심쩍게 여기는 주인에게 차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장롱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절대로 안 된다고 우기는 주인에게 미쓰코시 백화점의 신식 양복장을 사다 주고 얻어왔다.

이밖에 서울 광화문 네거리 동북부에 있는 비각(碑閣)의 철제문도 함석태가 보관했었다. 비각의 원래 이름은 ‘대한제국대황제보령망육순어극사십년칭경기념비각(大韓帝國大皇帝寶齡望六旬御極四十年稱慶紀念碑閣)’이다. 이 비는 대한제국의 대황제 곧 고종황제의 연세가 육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 40년이 되는 경사를 기념해서 1902년(광무6)에 세운 비이다. 이태준의 표현에 따르면 이 비각의 문짝을 “길을 넓히느라고 뜯어 경매할 제” 함석태가 경매로 낙찰 받는 것으로 “진고개 부호가 거액으로 탐내왔으나 굳게 보관해온 것”이다⁸⁾.

이처럼 열성스럽게 고미술품을 수집하던 함석태는 광복 직전 일제 의한 소개령에 의해 1944년 9월 또는 10월경 고미술품을 모두 추려 가지고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피신했다. 광복 이후 그는 만손자 함완에게 황해도 해주에 들러 먼저 월남하겠으니 뒤따라 올 것을 부탁하고 부인 딸을 데리고 먼저 길을 떠났지만 이후의 소식은 알 수 없다. 그가 해주를 월남 루트로 택한 것은 배에 가족과 고미술품을 함께 실어 월남하려 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¹⁾.

함석태의 소장품

함석태가 소장했던 고미술품의 수효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제의 소개령에 따라 고미술품을 “세 차나 싣고 왔다”는 손자 함각의 전언을 통해 대단한 수효였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간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 권 15 ‘조선 시대 도자 편’에 함석태의 자기류 품의 일부가 실려 있는데 나가타 에이조(永田英三, 22점), 마쓰바라 준이치(松原純一, 21점), 다나카 아키라(田中明, 18점)에 이어 그의 소장품이 15점으로 네 번째로 많이 수록된 것을 보면 함석태가 당시 조선백자 수장가로서 손꼽히는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고적도보’ 권 15 ‘조선시대 도자 편’에 수록된 함석태의 소장품은 표1과 같다(그림 3). 책에 수록된 순서를 따랐다.

도판번호	작품명	크기
6310	백자양각매화문주전자白磁陽刻梅花文水注	높이 12cm
6313	백자양각십장생문탁잔白磁陽刻十長生文托盞	높이 6.7cm
6346	백자투각연관대白磁透刻煙管臺	높이 5.3cm
6396	청화백자산수문사발 染付山水文罍	높이 16.6cm
6474	청화백자매화문연적染付梅花文水滴	높이 3cm
6493	청화백자합 染付盒	높이 4.9cm
6498	청화백자분수기染付粉水器	높이 2.3cm
6502	청화백자소병染付小瓶	높이 6cm
6505	청화백자소병	높이 8.6cm
6511	청화백자용형연적染付龍形水滴	높이 9.6cm
6542	청화백자운룡문접시染付雲龍文皿	높이 4cm
6565	청화백자박쥐문회접시染付蝙蝠文灰皿	높이 9cm
6566	청화백자산수문서판 染付山水文書版	길이 20cm
6615	청화백자진사회산악형연적染付辰砂繪山岳形水滴	높이 18cm
6624	청화백자진사회필세染付辰砂繪筆洗	높이 33cm

그림 3. 표1 조선고적도보 권 15 ‘조선시대 도자 편’에 수록된 함석태의 소장품

함석태가 소장했던 조선백자들은 “특히 작은 물건을 좋아해서 (도자기로 만든) 바늘통이며 담배물부리 같은 것을 잔뜩 사 모았다”는 박병래의 평과 ‘소물진품대왕’이라는 오봉빈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작고도 모양이 독특한 자기들이 대부분이다. “소 털을 쏟아서 제 구멍에 쏟는 이”라는 오봉빈의 평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성품이 대단히 치밀하고 꼼꼼했기 때문에 작은 물건에 애착을 가진 듯도 하다.

번호 6346 <백자투각연대>는 높이 5.3센티미터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담뱃대받침으로서 ‘작은 물건을 좋아한’ 그의 골동 수집 취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그림 4). 번호 6615 <청화백자진사회산악형연적>은 북한의 국보로서 2006년 6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북녘의 문화재’ 전시회에 <백자 금강산 연적>이라는 이름으로 출품되었는데(그림 5), 북한 도록류에서의 명칭은 <진홍백자 금강산모양연적>이다. 이 연적이 함석태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금강산 연적’으로 추정되는데, 험준한 봉우리를 첩첩이 만들고 계곡 곳곳에 사람과 동물, 정상에는 다층 누각집을 배치했고 화려한 채색안료를 사용하여 장식성을 한껏 발휘했다. 굵은 음각선을 새겨 바위산의 질감을 강조한 이 연적은 코발트와 구리 안료를 채색하여 청홍(靑紅)의 변화를 화려하게 강조했고, 굽에 ‘병오(丙午, 1846)라는 간지(干支)가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¹¹⁾.

이외에도 북한 문화재를 수록한 도록의 사진을 통해 함석태가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번호 6624 <청화백자진사회필세>는 북한에서는 <진홍백자금강산모양붓빨이>로 부르는데 역시 금강산을 상징하여 만든 것으로 보이며 가운데에 우뚝 솟은 바위산을 중심으로 청화(靑華)와 진사(辰砂)로 채색된 다양한 모습의 산들을 배치하여 변화감을 주었다(그림 6). 북한은 이 작품에 대해 “어느 모로 보나 당대의 ‘붓빨이’를 대표하는 걸작품의 하나”라고 해설했는데 그 말에 공감할 수 있게 작품이다¹²⁾.



그림 4. 백자투각연대. 일명 백자 뚫음무늬받침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림 5. 청화백자진사회산악형연적. 북한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평양 조선미술관).



그림 6. 백자진사회필세. 직경 20 cm의 크기로 역시 북한에 있는 물건이다.

이처럼 함석태는 도자기와 민속품을 주로 수집한 수집가이지만 그의 서화 소장품도 일제강점기 주요 수집가의 반열에 들 정도였음을 1930년대에 개최된 여러 전람회에 출품한 그의 소장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1930년 10월 17일에서 22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오봉빈의 조선미술관 주최로 동아일보사 3층 홀에서 개최된 제1회 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에 함석태는 “최북의 <금강총도(金剛總圖)>, 추사의 <예서십폭병>, 석파 대원군 <난>, 단원의 <동물>” 등 4점을 출품했다¹³⁾. 또한 1932년 10월 1일에서 5일까지 5일간 역시 조선미술관 주최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2회 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에는 “단원 김홍도의 <구룡폭>, 소치 허련의 <산거도(山居圖)>, 북산 김수철의 <선면매죽(扇面梅竹)> 등 3점을 출품했다¹⁴⁾. 아울러 1934년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동아일보사 주최로 동아일보사 3층에서 열린 ‘조선중국명작고서화전람회’에는 장택상, 이병직, 김찬영, 김은호(1892-1979), 박창훈, 김영진, 김용진, 이한복 등 당대의 주요한 수집가들과 함께 출품을 했는데 이 전람회에 그가 출품한 작품 수는 모두 10인의 작품 20점이었다(그림 7, 8).

북한에서는 ‘늙은 사자’라고 불리는 김홍도의 ‘노예흔기(老猓夔)’는 일어서려는 늙은 사자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배경을 생략하고 그리는데 대상만을 포착해 그린 것은 김홍도의 풍속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다(그림 9). 능숙한 솜씨로 붓의 강약과 먹의 농담을 조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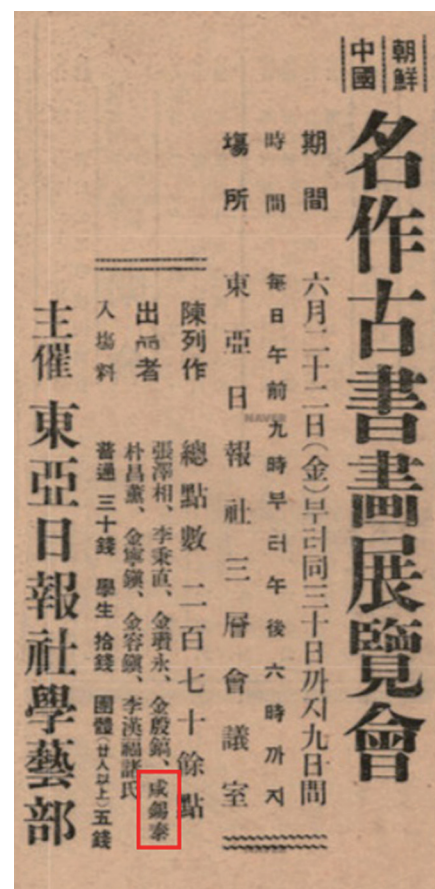


그림 7. 1934년 6월 22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조선중국명작고서화전람회 광고

작가	작품명	출품 수
김명국	선인도仙人圖	1점
유태장	목죽	1점
정선	금강전경액金剛全景額	1점
	호계삼소虎溪三笑	1점
심사정	매도梅圖	1점
	목란	1점
김홍도	화조대폭花鳥對幅	2점
	구룡폭	1점
	노예흔기老猯掀夔	1점
권돈인	목란, 완당제발阮堂提跋	1점
김정희	행서칠언대련行書七言對聯	2점
	적고당예액積古堂隸額	1점
	부용추수비린거액芙蓉秋水比鄰居額	1점
	목란	1점
최북	금강전경선면	1점
김수철	화훼대폭花卉對幅	2점
대원군	목란대폭墨蘭對幅	2점

그림 8. 표2 조선중국명작고서화 전람회에 출품된 함석태의 소장품



그림 9. 김홍도의 노예흔기. 늙은 사자라고도 하며 지금은 북한에 있다.

여 사자의 잠재된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등 대가다운 솜씨를 발휘한 수작이다. 김홍도 특유의 활달한 붓놀림이 인상적이다. 근대의 화가이자 미술이론가인 근원 김용준이 1948년에 간행한 근원수필에서 함석태 소장 최북의 금강산 선면을 언급한 바 있는데(그림 10)⁵⁾, 김용준이 언급한 작품이 조선중국명작고서화전람회에 함석태가 출품한 소장품이자 현재 평양의 조선 미술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금강전경선면’으로 추정된다. 최북의 작품 가운데 부채에 그려진 금강산 그림은 오직 이 작품만 알려져 있는데, 작품 전반에서 최북 특유의 필치보다는 태점(苔點: 산이나 바위, 땅의 묘사나 나물 줄기에 난 이끼를 나타낼 때 쓰는 작은 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다소 정형화된 느낌을 준다.

1932년 10월 조선미술관 주최로 열린 제1회 조선고서화진장품전람회에 함석태는 허련의 산거도를 출품했는데 이 작품은 평양 조선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산골살이’로 추정된다(그림 11). 산거도의 다소 거친 듯한 붓질로 표현된 나지막한 산들과 스산한 느낌의 피마준, 산 정상 언저리의 태점, 울타리 주변의 직선으로 올라온 침엽수 표



그림 10. 최북의 작품으로 전하는 금강총도. 평양 조선미술관 소장품



그림 11. 허련의 산거도(1851, 북한 조선미술관 소장)

현 등은 허련의 그림에서 자주 볼 수 있다. 화제는 “(신해년(1851) 가을 수헌 선생님 보아주십시오, 소치 올림(辛亥秋 睡軒先生 正鑒 小癡宗下)”)로 되어 있는데, 커다란 두 그루 소나무 밑의 초가에서 화병을 들고 오는 동자를 바라보는 인물이 제목 그대로 산속에서 은거하며 사는 수헌 선생으로 여겨진다. 허련의 그림은 대체로 까슬하고 소방한 필치로 된 것이 많은데 산거도는 어른께 드리는 그림이어서인지 붓놀림이 단정하다.

1938년 11월 8일에서 12일까지 오봉빈의 조선미술관이 주최하고 매일신보사 후원으로 경성 부민관에서 열린 대규모 서화 전람회 조선명보전람회에 함석태는 6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그 가운데 최북, 권돈인, 김수철의 작품은 1934년의 조선중국명작고서화전람회에 출품된 것과 같은 작품으로 추정된다¹⁶⁾. 정리하자면 함석태가 소장했던 고미술품 가운데 북한 문화재를 수록한 도록의 사진을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은 표3에 있는 것처럼 8점이다(그림 12).

맺음말

함석태는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라는 명예로운 기록 외에 ‘소물진품대왕’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많은 고미술품을 소장한 일제강점기 굴지의 고미술품 소장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4년 9월 또는 10월

번호	명칭	북한 명칭	크기	소재 도록
1	백자양각십장생문탁잔 (白磁陽刻十長生文托盞)	백자십장생 돈을무늬 잔과 잔대	잔 높이 3.5cm, 잔대 너비 14cm	『도보』 15권, 도판번호 6313 『도자기』, 도 66
2	백자투각연관대 (白磁透刻煙管臺)	백자뿔음무늬 담배대받침	높이 5.1cm	『도보』 15권, 도판번호 6346 『도자기』, 도 92
3	염부진사회산악형수적 (染付辰砂繪山岳形水滴)	진홍백자 금강산모양연적	높이 16.8cm	『도보』 15권, 도판번호 6615 『도자기』, 도 308 『북녘』, 도 63
4	염부진사회필세 (染付辰砂繪筆洗)	진홍백자 금강산모양붓빨이	직경 20cm	『도보』 15권, 도판번호 6624 『도자기』, 도 311
5	김홍도, <노예흔기(老猓襲)>	늙은 사자	25.4×30.8cm	『회화』, 도 235
6	김홍도, <구룡폭(九龍瀑)>	구룡폭	29×428cm	『회화』, 도 120 『조선』, 84쪽
7	최북, <금강전경선면(金剛全景扇面)>	김강총도	26×72cm	『조선』, 82쪽
8	허련, <산거도(山居圖)>	산골 살이	34.5×76cm	『회화』, 도 43 『조선』, 32쪽

◎ 현재 북한에 있는 前 함석태 소장품 가운데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 목록표

※ 참고한 도록은 아래 4권이다. 본문에는 '약칭_도판번호 또는 쪽수'로 기록하였다.

- 조선총독부 간행, 『조선고적도보』, 1934-1935 / 약칭 '『도보』'
-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시대 편) III 도자기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 / 약칭 '『도자기』'
- _____,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시대 편) IV 회화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3 / 약칭 '『회화』'
-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2006. 6 / 약칭 '『북녘』'
- 안희준 외 검토, 홍선표 감수, 『사진으로 보는 북한 회화 - 조선미술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12. / 약칭 '『조선』'

그림 12. 표3 현재 북한에 있는 함석태의 소장품 가운데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

경 함석태는 일제의 소개령에 따라 자신의 소장품을 모두 세 대의 차에 나눠 싣고 고향인 평안북도 영변으로 가서 해방을 맞이했다. 그 후 황해도 해주를 거쳐 월남하려다 실패한 이후 함석태의 소식은 알 수 없다. 아마도 해주에서 배를 이용하여 고미술품을 가져오려다 실패한 듯하다.

함석태가 수집한 많은 미술품 가운데 사진으로나마 전해지는 것은 조선고적도보 15권, 조선시대 도자편의 15점, 조선명보전람회도록과 평양 조선미술관 소장 9점인데,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도자기 15점, 회화 4점에 불과하다. 근현대 격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소장가들의 소장품들이 그 소재조차 알 수 없게 된 경우가 많은데 함석태의 소장품 역시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많은 수요는 아니지만 현재 전해오는 그의 소장품만으로도 함석태의 뛰어난 감식안, 심미안은 충분히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소품, 진기한 모양의 고미술품에 매료되었던 그의 성향과 기질을 확인할 수 있다. 함석태야말로 경제적 타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혼을 기울여 고미술품을 수집한 소장인의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을 듯하다.

참고문헌

1. 치과임상 편집부 : 최초의 한국인 치과의사 함석태, 치과임상 6월호, 1985
2. 함석태 : 구강위생 긴급한 요건, Dong-A Ilbo, 1924.02.11.
3. 안도산의 입치, 잡지 동광 제36호, 1932
4. 3명은 병중 신음, Dong-A Ilbo, 1927.09.10.
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
6. 함석태 : 공예미, 문장사 제1권, 제8호, 1939
7. 이태준 : 도변야화, 춘추 제3권 제8호, 1942
8. 박병래 : 도자여적, 중앙일보사, 1974
9. 오봉빈 : 서화골동의 소장가, Dong-A Ilbo, 1940.05.01.
10. 손진태 : 문예-민예수록, 삼천리 제7권 제7호, 1935
11. 도판해설, 북녘의 문화유산, 국립중앙박물관, 2006
12. 도판해설,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편,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조선시대편, III 도자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13. 성황이 기대되는 고서화진장품전, Dong-A Ilbo, 1930.10.10.
14. 고서화진장품전 명조 10시 개장, Dong-A Ilbo, 1930.10.01.
15. 김용준 : 근원수필, 을서문화사, 1948
16. 역대고서화의 정수 조선명보전람회, Maeil Sinbo, 1938.11.05.

〈교신저자〉

- 김상엽
-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 Tel : 031-743-6260, E-mail : happybard@naver.com

대한민국 치의학 선구자 함석태

변 응 래

Byun, Woong-Rae

대한민국 치의학 선구자 함석태

이가편한미치과의원
변 응 래

ABSTRA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eok-tae Ham (1889-?) founded the Hansung Dental Association, a Korean association created in opposition to Japanese dental groups. He can be credited as the person with the most dental 'firsts' in Korea. He was the first Korean to graduate from a regular dental school, the first officially registered Korean dentist to operate in Korea, the first Korean to open a dental practice, and the first president of the first dental organization comprised of Koreans. Even though Seok-tae Ham was a known figure, was a key dental pioneer and achieved so much, he has been lost to Korean dental history. Through historical materials, we can confirm that he was a philanthropist, donating funds and time to local schools and communities, thereby raising oral hygiene awareness as part of his social service activities.

Keywords: Seok-tae Ham, Hansung Dental Association, Dental pioneer

서론

함석태가 졸업한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는 사립으로 1907년 설립되어 처음에는 공립치과의학교로 발족했다가 1909년 6월 1일 일본치과의학교로 변경되었고, 1909년 8월에는 제반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학교령에 따라 전문학교로 승격되었다(그림 1). 1909년 8월 전문학교령에 의해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수업연한도 종래 2년에서 3개년 과정으로 연장되었다.

본 원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지 2025년 제63권 8호(280-291페이지)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재를 허락해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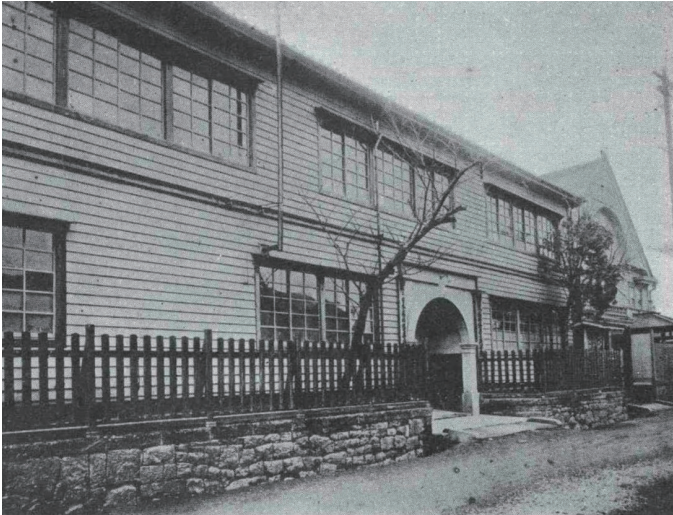


그림 1.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교사(1909년), 출처: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일람(1925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의 2년 과정을 마친 학생 16명은 1911년 인정 제1회로 졸업하였다. 전문학교로 지정되어 1년 과정을 더 수업한 학생 54명은 1912년 지정 제1회 졸업생이 되었고, 함석태는 2년 과정을 마치며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1912년에 졸업하였다(그림 2). 1912년 인정 제2회 졸업생은 15명이었고, 함석태와 함께 입학했던 107명은 1년 더 수업을 받은 후 1913년 지정2회로 졸업하였다.

함석태는 1936년 치과잡지 만선지치계에 게재한 회고록에서 밝혔듯이 처음에는 일본에서 전공으로 이비과(耳鼻科)를 전공하려 하였으나, 계획을 변경하여 조선의 치과계 발전을 위해서 1913년 12월 고국으로 돌아왔다.¹⁾ 함석태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내가 학교를 졸업한 것은 1912년(大正元年)이었는데 재학 당시는 누구나 다 같은 심리겠지만 특히 당시 조선에서 머나먼 일본에 유학이라도 하는 유학생의 심리는 학문을 마치고 소위 금의환국(錦衣還國)한다는 하나의 공명심은 아마 상상하고도 남을 것 같다.

그런데 조선 사회를 살펴본 즉 치과의학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고 가령 개업을 해도 아무런 이해(理解)가 없는 일이라면 마치 10년 공(功)도 일실(一實)에 귀(歸)하는 격이어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차라리 치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비과(耳鼻科)를 또 하나 전공하고 돌아가면 하는 마음으로 동경을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교장을 비롯 선배들이 말하기를 옛날의 일본과 현재의 조선과는 치과의 발전상태가 완전히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조선은 장래가 유망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서 개업하라는 격려를 받아 용기백배하여 1913년(대정2) 세모에 귀국했다.

開業	開業	開業	開業	死亡	開業	開業	開業
第七	鈴木	渡邊	大久保	鈴木	福山	梅村	沖野
章	吟	辰	保	俊	武	秀	泰
卒業	三	雄	透	樹	彌	行	太
生	三	秋	新	崎	鹿	島	廣
	重	田	潟	玉	見	島	島
	開業	開業	死亡	開業	開業	死亡	死亡
	井	永	小	成	須	宮	鹿
	田	澤	野	錫	田	野	井
	瑞	盛	英	泰	實	貞	史
	穂	宮	之	朝	東	一	一
	東	城	助	鮮	京	岡	熊
	京		秋			山	本
	開業	開業	開業	死亡	死亡	開業	開業
	三	飯	林	太	新	五	武
一一	宅	田	勇	田	井	十	田
	武	仙	次	抽	眞	風	英
	夫	三	郎	夫	忠	亮	次
	靜	山	大	三	塔	新	郎
	岡	口	阪	重	玉	湯	山
							形
							根

그림 2. 함석태 지정 제2회 졸업(1912년), 출처: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 일람(1925년)

日本齒科醫學專門學校

THE NIPPON DENTAL UNIVERSITY
School of Life Dentistry at Tokyo

[illegible]

2025 대한치과임상학회
임원워크숍

함석재 선생의
발자취를 찾아서...

토론회 11PM (1889~?)

- ◊ 일시: 2025년 4월 4~6일
- ◊ 장소: 일본 동경

鐵 貫

林涌基 130 李喜源 132 131

195 180 178 143 149 128 147 143 158 156 151

157 179 177

3 5 6 4 7 4 6 4 5 14 4 2

3 3 4 4 4 8

52 50 43 41

37 角 三

39 24

38 25

27 26

27 29 30 31

22 24 25 26

19 18 17 10 5 4 3 2

20 16 12 13 9 6

21 14 15 7

25 22

1 2 3 4 5 6 7 8 9 10 11

52 49 48

64 62

54 56 61 町

57 60

48 50 長

水 下

12 金

28_ Vol. 44, No. 1, 2025

1915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함석태 개업지 주소 경성부 송현동 68번지는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없다. 지도상에서 송현동 67번지는 2개가 있는데 68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1933년에 제작된 지도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지도상에서 조선생명이 있는 곳이 68번지라고 추측된다. 현재 네이버 지도와 1933년 제작된 경성정밀 지도상에서 송현동 크기와 모양은 거의 일치한다. 일제강점기 주소인 송현동 68번지를 현재 지도에 검색하면 송현동 72-1 또는 61-1 이런 주소가 뜨는데, 이곳을 직접 가보니 높은 펜스가 쳐져있는 곳을 지목한다. 송현동 68번지는 안국동과 경계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나무가 그려져 있는 펜스 끝부분이 함석태 개업지 주소인 송현동 68번지로 추정된다. 인터넷 지도로 송현동 68번지를 찾아보니 삼각정에 있는 함석태 치과와 1킬로미터 남짓 거리이다. 1935년 이후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석태 가족사진이 촬영된 곳이 관보에 나온 송현동 68번지이고 함석태의 자택이라 추정된다.

광복 후 함석태의 행적은 미궁에 쌓여 있지만 현재 함석태 치과 터는 다행스럽게 공유지로 보존되어 있다. 현재 지도상으로는 청계천 한빛 광장의 가장 우측 모서리에 해당된다(그림 8). 일제강점기 지도와 현재 네이버 지도를 비교해보니 삼각형 모양의 대지가 일치한다. 함석태 치과 터에 어떤 기념물이 있었으면 하는 게 필자의 바람이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이미지 상으로라도 기념 표지판을 만들어 보았다. 표지판에 들어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토선 함석태(1889~?)는 1914년부터 광복 때까지 경성부 삼각정 1번지에 함석태 치과를 개원하였다. 이곳이 바로 함석태 치과가 있었던 삼각정 1번지 주소의 일부분이다.

함석태 선생은 1912년 일본치과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치과의사가 되었고, 이곳에 한국인 최초로 치과를 개원하였다. 그는 일본인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조선치과의사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창립하였고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들의 구강위생 계몽에 헌신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얼을 보존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 안타깝게도 그는 1944년 소개령이 내려지자 자신의 수장품을 꾸려 고향인 평양북도 영변으로 잠시 머물다가 다시 경성으로 돌아오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선생은 대한민국 치의학 개척자, 일제강점기 대항과 구강위생 계몽의 선구자, 문화재 독립운동가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림 8. 함석태 치과 터의 일부인 청계천 한빛 광장의 가장 우측 모서리

일제강점기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인 함석태는 1914년 경성에서 치과를 개원한 후 수많은 난관에 봉착했을 것이다. 조선 백성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인식 정도, 입치사(入齒師)들의 비윤리적인 진료행위, 구강위생 계몽을 하기 위한 척박한 현실과 같은 문제들은 유일한 조선인 치과의사 함석태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특히 입치사들이 어지럽혀 놓은 일반 국민들의 치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는데 고군분투하였다. 1936년 만선지치계에 게재한 회고록에 입치사에 관한 일화가 내용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당시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¹⁾

경성에 돌아와 보니 일본 사람측은 고사하고 조선 사람측은 입치사 3-4명과 서양인의 닥터 한대위(韓大偉, 조선 성명으로 하여 치과를 경영함은 특히 조선 사회에 영합하는데 일대 광고술이라 할 수 있다)란 사람 등이 조선 사회의 상하는 통한 당면의 치과의사였다. 또한 입치사도 치과의사의 간판을 걸고 있는 혼돈상태이다. 이런 이해 없는 배경하에서 약관표표 단신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우리 사회에 조선 사람으로서 효시적 신사업을 위하여는 주소를 받지 않도록 당당한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환기하는데도 필요하고, 한편 금후의 동업자 즉 후진자의 전도를 열어주는데도 책임이 있으므로 한다면 훌륭히 하지 못해도 빈약하게는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정반대의 분기점에서 방황하고 있을 무렵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옆길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한 토막의 말로써 당시 사회의 치과에 대한 지식의 단면을 소개하게 되므로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시 3-4명의 입치사중의 한 사람으로 남대문동 1정목, 지금의 동일은행 옆에 한성치과의원이란 간판을 걸고 당당히 조선귀족사회와 일반 상류층을 단골로 하고 있던 입치사로서 박교상(朴敎祥)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1913년(대정2) 10월경에 총독부에서 조선의사법 치과의사법을 제정하여 1914년(대정3) 1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서 입치영업자가 의원의 간판을 내걸지 못하게 되자 박교상은 서양인 기독교 목사를 의지하여 치과의사 자격을 얻는 목적으로 입치영업을 그만두고 서양으로 갔다.

1914년 매일신보에 실린 함석태 치과 광고 문구에 그의 고민이 담겨져 있다(그림 9). ‘수술무료’는 일제강점기 입치사들과 경쟁해야 했던 전문직 치과의사의 고뇌어린 결단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석태는 구강위생 계몽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닫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기 위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3.1 운동이 발생한 1919년 7월 매일신보에 실린 ‘구강위생에 대한 주의’라는 함석태 칼럼이 우리나라 최초의 구강위생에 관한 칼럼으로 보인다.³⁾ 함석태는 일제강점기 백성들이 치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또한 칫솔의 사용 및 보관법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림 9. 매일신보 1914년 6월 19일

동아일보 1924년 2월 11일 칼럼에 의하면 함석태는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심상소학교에 축탁의로 지명되어 구강검사를 시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지난 수년 동안 구강검진이 연례행사이었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25년 3월 종로소학교 교장인 편강(片岡)이 함석태가 일본인 학생들을 검진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아일보 3월 21일 기사는 일본인 교장의 이러한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그림 10).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의사의 신성을 무시하고 편강 교장이 함석태 구강 검진의 축탁을 거부함에 따라 함석태는 다른 일본인 치과의사와 축탁의를 교환하여 서대문소학교에서 구강 검진을 하게 되었다.⁴⁾ 조선일보 1925년 3월 23일 조선일보 1면에 ‘기괴한 우월감’이라는 짧지만 강력한 기사가 실렸다.⁵⁾

1930년 8월 10일 조선일보에 실린 ‘가정에서 알아야 할 니병과 니에 위생’이라는 칼럼에서 청년 함석태 선생의 사진을 발견하였다(그림 11). 그토록 함석태 선생의 사진을 찾을려고 애쓸때는 실패했었는데 ‘구강위생 계몽’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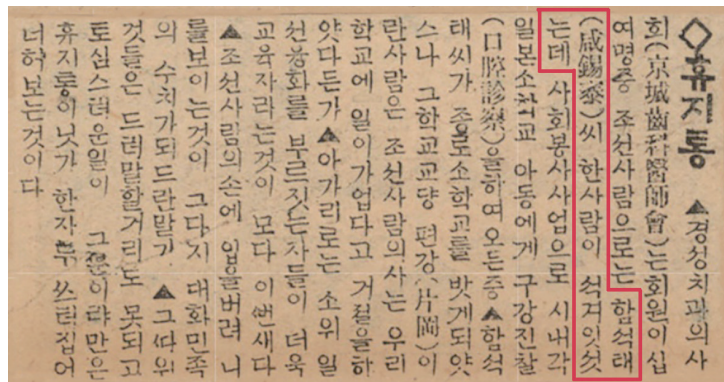


그림 10. 동아일보 1925년 3월 21일

그림 11. 조선일보 1930년 8월 10일

검색을 하다가 희미한 사진을 찾게 되었다. 오래된 사진을 사진 복원 전문가인 김충식 선생에게 의뢰하여 예술작품으로 복원하였다. 복원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그림 12). 첫째 거친 피부 톤을 정리하고 음영을 구분한 후 1차 윤곽을 스케치 한다. 둘째, 1차 채색과 배경을 구분한다. 셋째, 세부적 윤곽과 피부 톤을 보완하면서 완성한다.

일제강점기 구강위생에 관한 칼럼을 아홉 번이나 게재한 치과의사는 함석태 뿐인 것으로 추정된다. 9개의 칼럼을 읽으면서 함석태 선생이 얼마나 조국과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썼는지 알 수 있다. 그의 4번째, 5번째 신문 칼럼 원본에 일부 소실이 있다. 신문지 일부가 찢어져 사라졌을 뿐인데 그 부분을 보고 있노라니 안타깝다. 또한 그 부분을 영영 볼 수 없다니 슬프다.

1924년 2월 11일 동아일보에 ‘구강위생 긴급한 요건’이라는 칼럼에서 조선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및 구강 위생 계몽 활동이 시행되지 못함을 안타까워 했던 함석태의 소망은 1933년 실현되었다. 1933년 시내 정동에 있는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에 학부형인 한응수(韓應壽)가 기증한 일천 오백원으로 위생실이 설치되었다(그림 13).⁶⁾ 먼저 간략하게 덕수초등학교 연혁에 대해서 알아본다. 덕수초등학교는 1912년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로 시작하였기에 2025년인 올해가 개교 113주년이다. 1934년부터는 남학생을 모집하면서 학교명이 덕수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

1933년 경성여자공립보통학교에 위생실이 설치되자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위생실내에 치과치료실을 마련하여 1800명 아동의 치과 치료를 담당하였다. 치과의사 함석태와 조경호가 교대로 매주 4일(월,수,목,토)이나 학교 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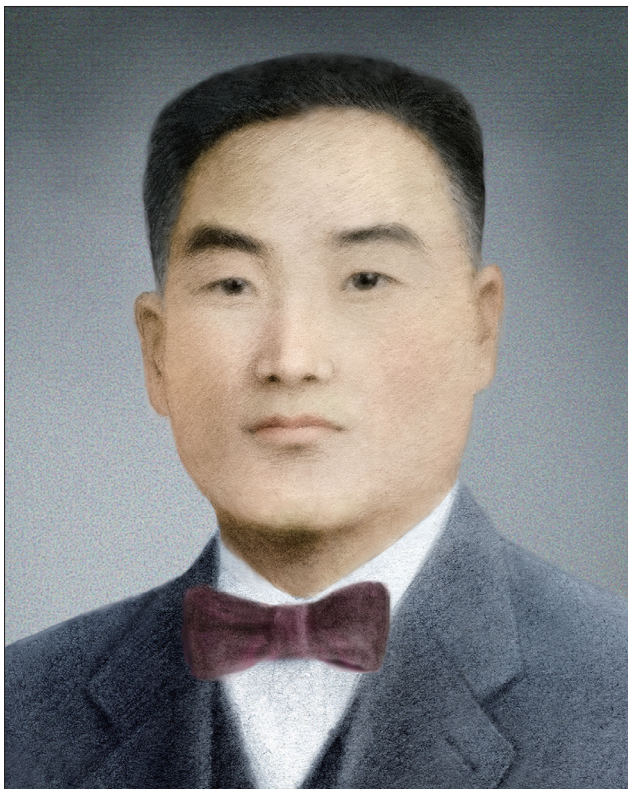


그림 12. 복원된 함석태 초상화(김충식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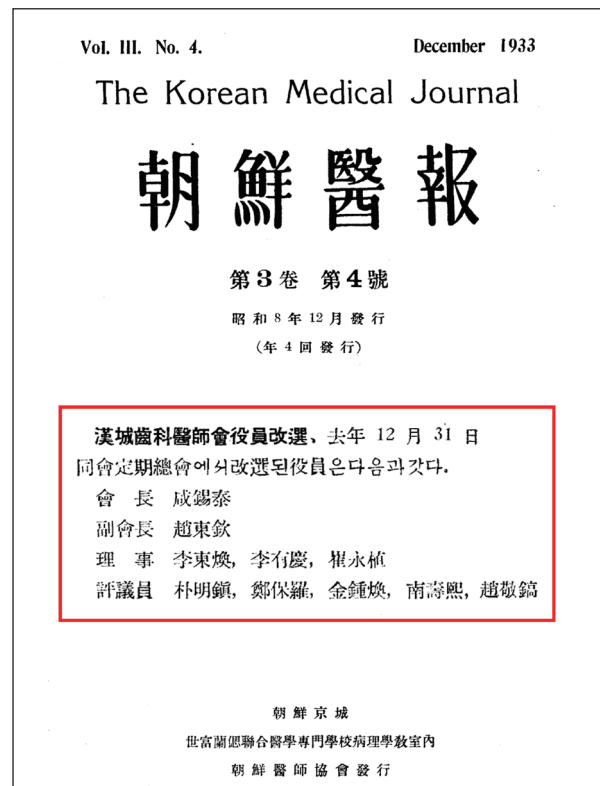


그림 13. 조선의보 제3권 4호, 1933년

치료실을 방문하여 봉사하였다. 일본 학생들이 다니는 각 심상소학교에는 10년 전부터 치과진료실이 설치되었고,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단체인 경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경성부 학무과에서는 치과 진료실이 구비된 심상소학교에 매년 5백원씩 보조를 하고 있었다. 반면에 조선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18개의 보통학교중에서 치과진료실이 설치된 곳은 덕수공보가 유일하다.

함석태와 조경호는 조선 아동들이 다니는 보통학교에도 심상소학교처럼 경성부 당국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학부형들에게도 도회지 아동들의 충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으니 자녀들의 치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덕수공보 아동들의 구강검진 결과 전체 아동의 65%가 충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통계를 보고하였다.⁷⁾ 함석태와 조경호는 그동안 271명의 아동에게 충치치료를 하였다. 따라서 경성에 있는 다른 보통학교에도 치과진료실이 긴급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치의학 역사적으로 의미를 지닌 덕수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였다. 학교 정문 앞에서 지금으로부터 90여년 전 덕수공보를 일주일에 4회나 방문하면서 치과진료 봉사를 하였던 함석태와 조경호 선생의 노고를 떠오르면서 두 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게 머리를 숙였다.

본 고에서는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를 구강위생 계몽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함석태는 언행일치(言行一致)와 지행일치(知行一致)를 실천하는 일제강점기 전문직업인이었다. 일제강점기 함석태의 독무대였던 치과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봉사적 활동의 일환으로 구강위생 계몽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함석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중요한 미션이라 생각한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창립된 치과의사 단체는 3개이며, 함석태는 3개의 단체에 모두 회원으로 인연을 맺었다. 각각의 3개 단체를 설명한 후 함석태가 그 단체에서 어떤 존재감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 본다.

1909년 조선에 개원하고 있었던 일본인 치과의사들의 숫자가 5명이 되자 친목단체 형식으로 경성치과의사회 모임이 만들어 졌다. 1912년 1월 16일 일본인으로서 정규의 학교 교육을 받은 치과의사들이, 그들만으로 최초로 경성 치과의사회를 창립하였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창립된 치과의사회는 1912년 경성에 있는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만든 경성치과의사회이다. 경성치과의사회는 1942년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성치과의사회와 통합되면서 해산되었다.

1921년 10월 2일 경성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부산, 평양에 있는 일본 치과의사들도 이 단체에 참여하면서 전국적인 치과의사 단체의 형식을 갖춘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되었다. 1932년에는 시단위 치과의사 단체가 참여하면서 명칭이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변경되었고, 1941년에는 13개 도단위 단체 가맹하면서 다시 조선치과의사회로 단체명이 바뀌었다. 1944년에는 조선치과의사회가 조선총독 명령에 의해 해산된 후, 관선치과의사회가 탄생하였다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이 단체는 자연 소멸되었다.

1925년 4월 15일 이후 어느 날 한국인 치과의사 7명이 모여 창립된 단체가 한성치과의사회다. 한국인 치과의사들이 창립한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가 한성치과의사회다. 1928년부터는 회원의 수가 20명이 되면서 각 부서를 만들고 회의 체계를 마련하면서 우리나라의 치과계 발전과 구강계몽에 힘을 쏟았다. 창립 후 10여 년 동안 한성치과의사회는 독자적이면서 일본치과의사 단체들과 대등하게 운영되다가 1935년 강제 입회 제도가 마련되면서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1942년 일제의 압력으로 일본인 치과의사 단체인 경성치과의사회에 강제로 합병되면서 한성치과의사회는 해산되었다.

일제강점기 한성치과의사회의 활약을 기록으로 확인한 최초의 자료는 1933년부터이다(그림 14). 함석태를 필두로 하여 20명의 회원이 충치 예방데이를 맞이하여 무료 진찰 봉사에 참여하였고, 회장인 함석태는 구강계몽을 위한 칼럼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한성치과의사회는 1933년 12월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개선을 하였다.⁸⁾ 회장, 부회장, 이사 및 평의원을 갖춘 명실상부 체계화된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신문 기사로도 보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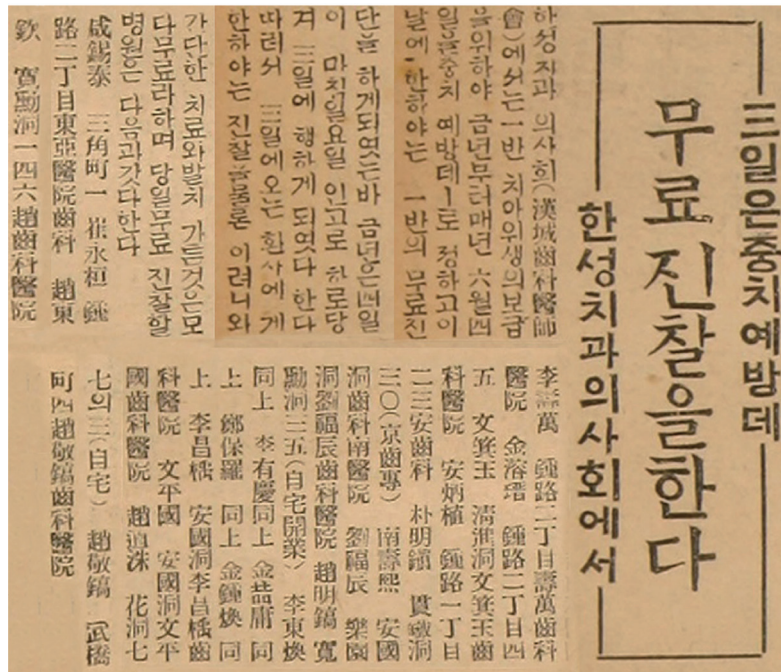


그림 14. 조선중앙신문 1933년 6월 3일

1932년 일본인 치과의사 우스이 쓰네히데(臼井常英)는 치과에 내원한 환자 3명에게 매독 치료제로 사용되는 살발산을 주사한 것이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의사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고발당했다. 1, 2심에서는 환자 2명은 매독은 없지만 치조농루증이 있고, 나머지 환자 1명은 매독 잠복기에 있고 치조농루가 있어 그 입안을 치료하기 위해 살발산 주사를 준 것이므로 의사법 위반이 아니라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33년 12월 18일 경성고등법원은 구강매독은 전신질환이므로 치과의사는 구강매독의 치료 권한 없다고 판단, 살발산 주사를 한 치과의사는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실히 넘은 것으로 해석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번 판결은 일본과 조선에서 처음 있는 판결례로 남아있으며,⁹⁾ 이 당시 조선에 현존했던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과 한성치과의사회장의 치과의사에게 유죄 판결에 대한 생각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필자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한성치과의사회가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주축을 이룬 조선연합치과의사회와 대등한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934년 6월 4일 오후 8시 종로에 있는 중앙청년회관에서는 한성치과의사회 주최로 구강위생 강연회가 열렸다(그림 15). 한성치과의사회 회장인 함석태가 사회를 맡았다는 점이 흥미롭다. 강연 사이에 섹스폰과 하와이 앤끼 연주를 추가하여 다소 지루할 수 있는 강연회를 재미있게 할려는 주최 측의 노력도 엿보인다. 22명의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조선 아동들에 대하여 무료 시술을 시행하였다.¹⁰⁾

함석태는 한성치과의사회 회원들과 함께 1935년 충치예방일 기념 사업으로 15개 공립 보통학교에서 위생강연회와 무료 진찰을 시행하였다.¹¹ 1935년 연말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임을 받으며 선출되었다.¹²⁾

1936년 한성치과의사회는 충치예방일 기념행사로 구강 위생 사상을 선전하는 행사와 무료 진료를 시행하였다.¹³⁾ 23명의 회원이 무료진료에 참여하였는데, 개업 회원, 경성제국대학과 세브란스 치과교실에 근무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진료진이 자랑스럽게 보인다. 한성치과의사회장 함석태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과 경성치과의사회장과 함께 충치예방일 홍보차 조선일보를 방문하였다(그림 16).

만선지치계 신년광고에서 여러 치과의사 단체들이 보인다. 1936년 신년광고에서 볼 수 없었던 한성치과의사회가 1937년 만선지치계 1월호에서는 보인다(그림 17).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전후해서 비상시국이었다. 따라서 치과의사 단체들은 총회도 개최하지 못하였고, 군사후원연맹이 조직되면서 한성치과의사회는 경성부 군사후원연맹에 가맹하였다.¹⁴⁾ 조선연합치과의사회는 조선군사후원연맹에 가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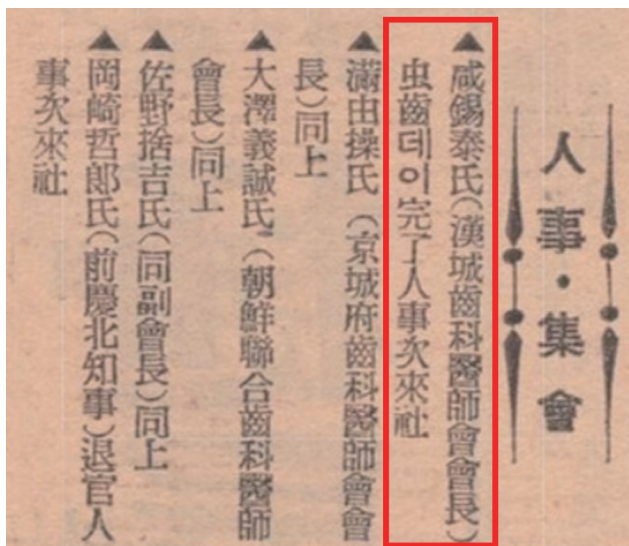


그림 16. 조선일보 1936년 6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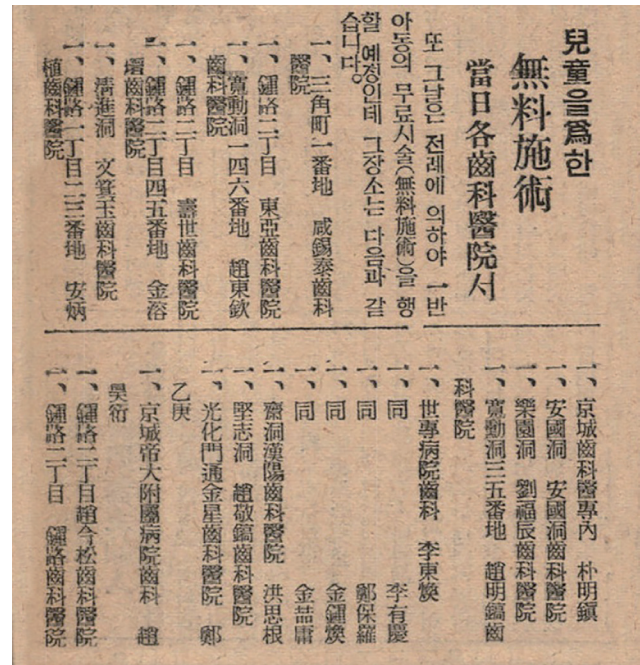


그림 15. 동아일보 1934년 6월 1일



그림 17. 만선지치계 제6권 1호, 1937년

1938년 2월 한성치과의사회는 삼각정 1번지(함석태 치과)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개선하였다.¹⁵⁾ 한성치과 의사회장 함석태는 이번에도 조선연합치과의사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충치예방일 홍보차 조선일보사를 방문 하였고,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여 ‘충치데이를 당해야’란 제목으로 구강위생 계몽에 나섰다.¹⁶⁾ 6월 4일에는 탁아 소 주치의 한소제와 함께 ‘이를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¹⁷⁾ 1938년 충치예방일 행사에서는 경성에 있는 공립소학교 아동 3만명에게 충치와 치과 위생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23명의 회원이 무료진료에 참여하였다.¹⁸⁾ 올해에는 특별하게 충치예방데이를 홍보하는 신문광고에 한성치과의사회 회원 여러 명이 참가하였다. 회장인 함석태는 ‘재래의 전습인 고치법’이라는 제목의 구강위생 칼럼을 게재하였다(그림 18). 우리 선조들께서 구강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칼럼이다.

1925년 4월 15일 어느 날 한국인 치과의사들로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함석태가 창립한 해부터 1938년까지 회장을 역임하였다. 1938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임원을 개선한 결과 함석태는 고문으로 추대되었고, 이사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신설하여 박명진이 선임되었다(그림 19). 한성치과의사회는 함석태가 회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1939년, 1940년, 1942년에 충치예방일 기념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였다(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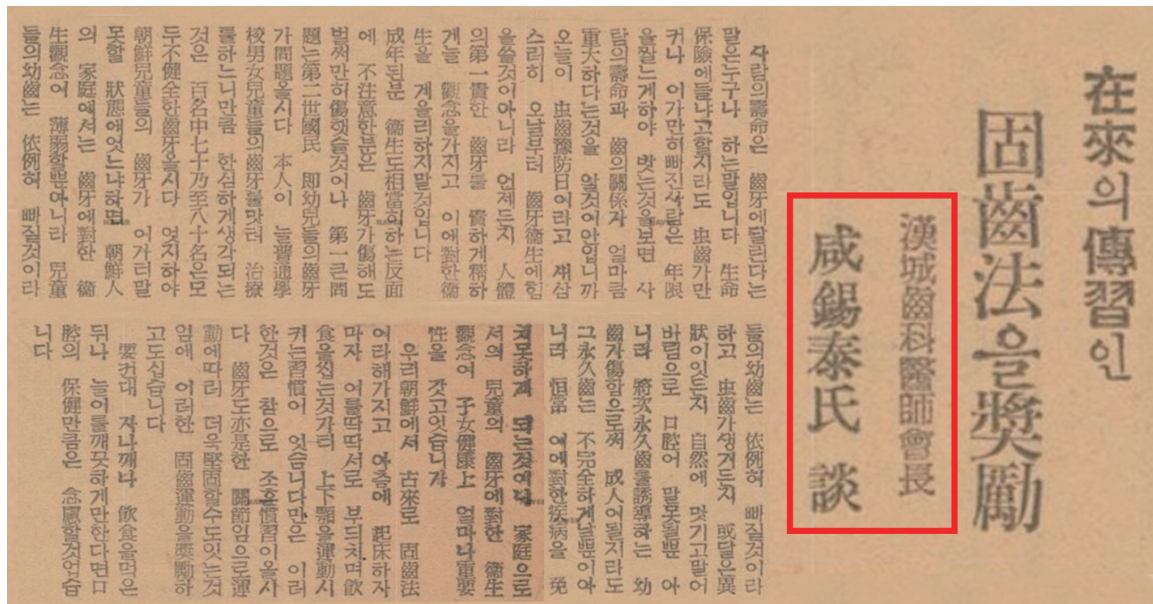


그림 18. 조선일보 1938년 6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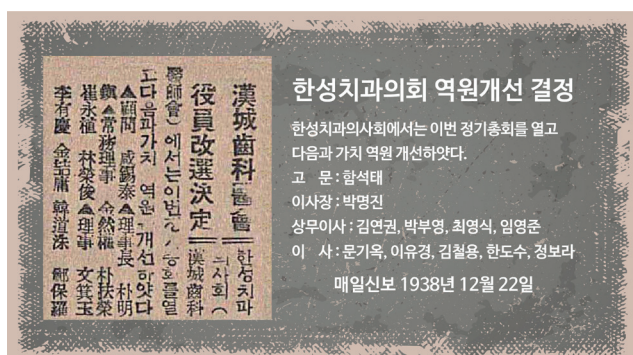


그림 19. 매일신보 1938년 12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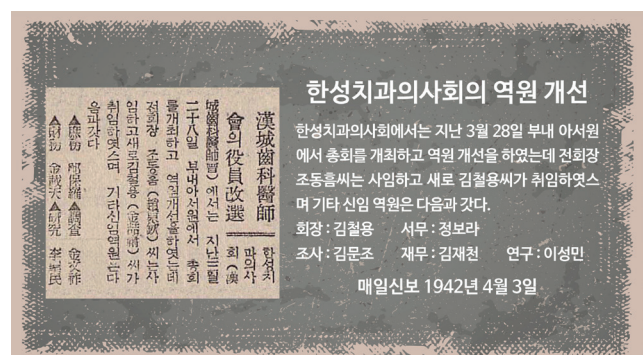


그림 20. 매일신보 1942년 4월 3일

결론

일제강점기 일본인 치과의사 단체에 대항하기 위해 창립한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자 함석태는 대한민국 치과계에 서 최초의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진 인물이다. 한국인 최초로 정규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 한국인 최초의 치과의사, 한국인 최초의 치과 개원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치과의사 단체 초대회장.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험난한 길을 개척한 함석태 이름 석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다. 일제강점기 함석태의 독무대였던 치과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봉사적 활동의 일환으로 구강위생 계몽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음을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함석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중요한 미션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함석태 : 회고록, 만선지치계 제5권 제9호, 1936
2. 함석태 : 구강위생 긴급한 요건, Dong-A Ilbo, 1924.02.11.
3. 함석태 : 구강위생에 대한 주의, Maeil Sinbo, 1919.07.23.
4. 의사의 신성을 무시한 종로 소학교 편장 교장, The Chosun Ilbo, 1925.03.22.
5. 기괴한 우월감, The Chosun Ilbo, 1925.03.23.
6. 아동치아 무료치료, The Chosun Ilbo, 1935.11.15.
7. 경성 조선 아동도 65%가 충치, The Chosun Ilbo, 1935.11.16.
8. 한성치과의사회 신역원, Maeil Sinbo, 1934.01.24.
9. 국소병증에 전신치료 당연, Dong-A Ilbo, 1933.12.19.
10. 당야 청년회관에서 구강위생 강연회, Dong-A Ilbo, 1934.06.01.
11. 한성치의회, Dong-A Ilbo, 1935.06.02.
12. 한성치과의사회 총회, The Chosun JoongAng Ilbo, 1935.11.16.
13. 한성치과의사회 주최로 구강위생선전, The Chosun Ilbo, 1936.06.03.
14. 국방 현금 위문금, Dong-A Ilbo, 1937.10.09.
15. 한성치의 임원 개선, Dong-A Ilbo, 1938.02.21.
16. 충치예방 데이를 당하야, The Chosun Ilbo, 1938.06.03.
17. 충치데이를 당하야, Dong-A Ilbo, 1938.06.04.
18. 금일은 충치예방일, The Chosun Ilbo, 1938.06.04.

〈교신저자〉

- 변웅래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097 원영빌딩4층 이가편한미치과의원
- Tel : 033-643-2275, E-mail : byunpla@naver.com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문화유산을 지키다!

김영란

Kim, Yeongran

- 1장 구룡마을에 온 낯선 아저씨
 - 미카엘 선교사와의 첫 만남
- 2장 작은 것도 소중히 간직한 아이
 - 어머니에게 배운 따뜻한 눈
- 3장 일본 치과 대학으로 향하다.
 - 조선에는 없는 학문 치의학, 나라에 필요한 길을 택하다.
- 4장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 고치는 집'
 -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
- 5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손을 내밀다.
 - 새로운 가족, 영재의 입양
- 6장 깨진 물건에 담긴 이야기
 - 문화재를 지켜라.
- 7장 우리의 이야기를 지키자!
 - 다시 고향 영변으로

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 문화유산을 지키다!

김 영 란

1장 구룡마을에 온 낯선 아저씨 - 미카엘 선교사와의 첫 만남

1889년 12월 25일 평안북도 영변의 구룡마을에 소리 없이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함영택은 밤새 출산을 앞둔 아내의 앓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산고는 훌쩍 밤을 넘겼다. 소식을 기다리다 지친 함영택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다. 물려드는 한기에 복잡한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다.

집 앞마당에서 멀리 보이는 검푸른 산맥까지, 온 세상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그 웅장한 모습에 함영택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의 고통뿐 아니라, 나라의 앞날 또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 김 진사에게 전해 들은 조선의 내일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그때,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기침하셨습니다?”

“아직 기별은 없느냐?”

“방금 우렁찬 울음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사내아이라고 합니다. 마님도, 도련님도 모두 건강하다고 산파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태어난 날이 서양 선교사들이 말하는 예수님 탄생일과 같은 날이라, 지금 온 집안사람들이 좋아서 난립니다.”

과묵한 함영택은 말이 많은 삼돌이에게 짧게 고생했다는 말을 건네고,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아내는 언제 그런 고통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작지만 힘찬 아이의 숨결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새근새근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는 이 집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 같았다.

함영택은 마음속으로 미리 지어 둔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함석태’

오랫동안 기다렸던 함씨 집안의 독자가 태어난 것은 경사 중의 경사였다. 함영택은 큰 숙제 하나를 내려놓은 듯 했다. 아들이 태어나자,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우면서도 단단해졌다. 아들은 그에게 그런 존재였다.

함씨 가문의 땅을 밟지 않고 구룡마을에 들어설 수 없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과 비단 장사로 부를 이룬 함영택은 그 부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다. 특히 선교사들과의 인연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 말, 흔들리는 나라를 부어 잡기 위해 어떤 이는 침묵으로, 어떤 이는 배움으로, 또 어떤 이는 묵묵한 실천으로 시대를 견뎌냈다. 함영택은 큰 소리로 나서기보다 눈에 띄지 않게 사람을 돕는 길을 선택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는 믿고 있었다. 사람을 살리는 작은 실천이 모여, 언젠가는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임을. 함영택은 배워야 나라가 산다는 믿음으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데 힘을 쏟았다. 석태는 그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다. 아버지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다. 집보다 밖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겼다.

석태는 가족과 이웃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조용하고 침착했던 석태는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이면 사랑방 뒷마루에 앉아 집에 드나드는 손님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

봄별이 따사롭게 비추던 날, 석태는 손님맞이로 바쁜 아버지를 보면서 궁금증이 일었다. 몇 시간째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다.

“아버지, 우리 집에 훈장님도 오시고 지금까지 십오인 이나 방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안에서 무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곱 살 아들이 차분히 앉아 사랑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일일이 세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뚝뚝하고 기특한 그 모습에 함영택은 절로 웃음이 나왔다.

“십오 인이나 되는지 아버지도 오늘 처음 알았구나.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고 있단다.”

“함께 잘 사는 방법이요?”

“궁금하면 석태도 내일부터 사랑방에 들어오너라.”

“정말요?”

석태는 금기시된 사랑방에 들어오라는 허락을 받자,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했다.

함영택은 교육이 나라와 아이들을 살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힘닿는 데까지 도울 생각이었다. 함영택의 사랑방은 일종의 회의장이었다. 석태는 사랑방에 드나들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다음 날 들어간 사랑방에는 종이와 먹 냄새가 가득했다.

“백성의 힘으로 세우는 학교가 가능할지... 일을 하면서도 늘 걱정입니다.”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있어도 되는지 부끄럽기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한 사람이 말끝을 흐리자, 함영택은 말을 받아쳤다.

“국권을 지키는 것은 칼만이 아닙니다. 글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라의 뿌리는 깊어지고 나라를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꿈같은 소리라는 비웃음도 있었지만, 함영택은 소신껏 일을 진행시켜 나갔다. 석태는 눈을 빛내며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다. 함영택의 말은 차분했지만, 주위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배워야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함영택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그는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신념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이라 믿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삶이라고 여겼다.

훗날 함석태가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개척해 치과의사 1호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된 것도 어린 시절부터 곁에서 지켜본 아버지의 삶 덕분이었다.

어느 날, 함영택은 아들 석태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와 함께 길을 나서자.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석태는 외출한다는 말에 기쁜 마음으로 신부터 챙겼다. 드디어 가마를 타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당 한쪽에 세워진 가마쪽으로 자꾸 시선이 갔다. 아버지가 나오자, 석태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심 기대에 차 있었던 석태는 가마를 지나쳐 가는 아버지를 향해 물었다.

“아버지, 가마 안 타요?”

석태의 물음에 함영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함영택은 자녀들을 절대로 가마에 태우지 않았다. 고집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걷고, 스스로 힘을 들여 세상을 만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둘은 나란히 길을 걸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석태의 걸음이 뒤틀리지자, 함영택은 아들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잡아 주었다. 잠시 쉬기도 했지만, 석태는 이렇게 머나먼 길을 걸어가자는 아버지가 야속하기도 했다.

드디어 역 앞에 도착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석태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석태는 놀란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말로만 듣던 서양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다(그림 1).

“석태야, 이분은 블란서에서 온 미카엘 선교사님이란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먼 나라에서 오셨단다.”

미카엘은 놀란 눈으로 깍듯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석태를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었다.

“반가워.”

서툴지만 우리말로 인사를 건넸다.

석태는 미카엘의 외모뿐만 아니라 짧은 머리카락도, 들고 있는 검정 가죽 가방까지, 모든 게 신기해서 눈을 떼지 못했다. 미카엘은 그런 석태가 귀여운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미카엘은 수레가 있는 곳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수레에는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실려 있었고, 미카엘과 석태는 수레에 나란히 앉았다. 미



카엘은 석태를 번쩍 들어서 반듯하게 실린 짐 위에 앉혔다. 석태는 그런 미카엘이 싫지 않았다.

마을로 가는 길, 미카엘은 산과 들이 펼쳐진 자연 풍광에 빠져 ‘아름답다’를 연발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서자, 언제 소문이 났는지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저게 누구야?”

“외지 사람 아니야?”

웅성거림 속에서 수레가 멈췄다.

미카엘은 수레에서 먼저 내려 석태를 번쩍 안아 바닥에 내려주었다. 미카엘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정확했다.

미카엘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수레 옆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서툰 조선말로 또박또박 말했다.

“아픔... 고쳐 드립니다.”

어색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말도 어눌하고 옷차림도 낯설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고 웃음에는 경계가 없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온 선교사이자 의사였다. 미카엘은 오자마자 마을 회관 앞에 자리 잡고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칼, 집게, 붓대와 약병 같은 의료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저게 다 뭐야?”

“칼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뒤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석이 아저씨였다.

“제 다리가... 몇 달째 이래요.”

바짓단을 걷어 올리자, 다리는 통통 부어 있었고 상처는 제대로 아물지 않은 채 붉게 부풀어 있었다.

“어디서 다쳤나요?”

미카엘이 물었다.

“논두렁에서 미끄러져서요, 그냥 두면 낫겠지 했는데, 점점 더 아파서...”

미카엘은 땅에 무릎을 꿇더니 석이 아저씨의 무릎은 만져보고 상처를 천천히 살폈다. 손놀림은 조심스러웠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미카엘이 날카로운 칼을 들자, 사람들이 경계의 눈빛을 보였다.

미카엘이 석태를 돌아보며 말했다.

“석태, 물 부탁해.”

석태는 자기 이름이 불리자 잠깐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이 든 바가지를 미카엘 옆에 두었다. 미카엘에게 물을 건넨 석태는 심장소리가 밖에 들릴 정도로 쿵쾅거렸다. 석태는 그날의 뿌듯한 기분을 평생 잊지 못했다.

미카엘은 상처를 깨끗이 씻고, 고름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석이 아저씨 이마에 땀이 맺혔다.

“아, 아야...”

고름이 찬 부분을 조심스럽게 칼로 누르자, 누런 고름과 피가 쏟아졌다. 한참 동안 상처 부위를 만지더니 그곳에 가루약을 뿌렸다. 미카엘은 석태에게 손짓으로 붓대를 가리켰다. 석태는 재빨리 붓대를 건넸다. 척척 일을 해내는 석태를 향해 미카엘은 환하게 웃으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미카엘은 붓대로 상처 난 부위를 단단히 감쌌다. 치료가 끝나자, 석이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다리에 힘을 실어 보았다.

“어...? 다리에 힘이 들어가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걷는게 달라졌어.”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보탰다.

석이 아저씨는 미카엘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와 존경의 의미였다. 석태의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졌다.

‘같이 쓰였는데 사람을 해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다니...’

석태는 미카엘을 우러러보았다.

2장 작은 것도 소중히 간직한 아이 - 어머니에게 배운 따뜻한 눈

석태는 영변에 있는 보통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학교에 오갈 때 어머니는 늘 석태와 함께 길을 나섰다.

늦겨울, 혹독한 추위였다. 매서운 바람 때문에 눈을 뜨기 힘들었다. 바람이 잠재워지자, 석태는 길을 나섰다. 오늘만큼은 혼자 가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어김없이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떠나는 길을 석태와 함께 나섰다.

역으로 가던 중 석태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잠깐만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석태 곁에 섰다.

석태는 길가에 떨어진 사기그릇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 들었다(그림 2). 푸른 무늬가 반쯤 남은, 손바닥보다 작은 조각이었다.

“버려진 건데 예뻐요.”

“그래 깨진 조각이지만 빛깔이 참 곱구나.”

석태는 어렸을 적 늘 주머니가 볼록한 아이였다. 돌멩이 하나, 떨어진 단추 하나, 종이에 눌러 말라 버린 들꽃까지 어른들 눈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지만 석태에게 작은 물건은 놀잇감이자, 그날의 기억이었다.

어머니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석태의 마음이 기특하고 예뻐다. 사내아이가 소심하다고 걱정하는 집안 어른들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석태의 그런 마음을 잘 지켜주었다. 어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석태가 주운 그릇 조각을 정성껏 싸 주었다(그림 3).

“그냥 가방에 담으면 되는데요.”





행여 다칠까, 그릇 조각을 손수건에 싸서 건넨 것이다.
“석태 눈에 들어온 거면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이니, 잘 간직하거라.”

석태는 그런 어머니가 항상 고마웠다.

석태가 가진 결을 잘 다듬어 준 덕분에 그는 낡은 책이나 금이 간 연필도 소중히 다룰 줄 알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보살피는 세심한 눈을 갖게 되었다.

석태는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해준 말이 늘 생각났다.

“살다 보면, 이 세상 물건도, 사람도 다 의미가 있고 쓰일 곳이 있단다.”

훗날 그가 작은 치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의사가 되고, 부서진 문화재 조각 하나에서도 역사의 숨결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결같이 석태를 응원해 준 어머니의 넉넉한 마음 덕분이었다.

1908년. 조선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자 백성들의 삶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함영택은 아들 석태가 시대를 앞서가는 공부를 하길 바랐다. 글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함영택은 기술과 학문이 나라에 새로운 힘이 된다고 느꼈다.

“석태야,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진 기술을 제대로 배울 곳이 없다. 배우려면 적의 땅으로 가거라.”

일본은 당시 서양 의술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인 나라였다. 조선 청년들 중 일부는 분노와 갈등 속에서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행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석태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을사조약 이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친구들을 보면서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석태는 일본 유학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 말대로 조국을 떠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석태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화롯불 앞에 석태와 마주 앉았다.

“석태야, 이리 와서 앉거라. 아직 마음의 결정을 하지 못했느냐?”

“네, 나라가 이 모양인데 제가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어머니는 지긋이 석태를 바라보았다.

“석태야, 아픈 사람 곁에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 고쳐 줄 손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듣자, 석태는 마음속의 갈등이 풀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지금 조선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많지만, 기술이 없다. 네가 여기 남아 함께 아파한다고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단다. 아버지 말씀대로 일본에 가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오너라.”

석태는 고개를 숙였다.

“적의 나라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석태야, 배움에는 죄가 없단다. 그걸 어디에 쓰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디서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후, 석태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배움에는 죄가 없다. 쓰임이 죄를 가른다.’

석태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무언가 해야 한다는 힘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일본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한 후, 석태는 틈이 나면 미카엘 선교사 곁에서 그를 도왔다. 물을 데우고, 봉대를 접고, 치료받을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일이 석태의 몫이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사내가 얼굴을 감싸 쥔 채 들어왔다. 말하려 해도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았다,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미카엘 선교사는 조심스럽게 사내의 입을 들여다보면서 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에 염증이 심합니다. 지금 조선에서는 이를 제대로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응급처치만 하겠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에 익숙해진 표정이었다. 이를 뽑아야 고통이 사라진다고 이를 빼달라고 했지만 미카엘은 염증 치료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

치료가 끝난 뒤, 석태는 미카엘에게 물었다.

“이는 치료할 방법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이를 치료해줄 의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네. 서양에는 이를 전문으로 고치는 의사가 있네. 치과 의사라고 부르지.”

“그런 학문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조선에는 아직 없지만. 일본에도 치과 대학이 있다고 알고 있네. 아, 그리고 조선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을 직접 보았네.”

석태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일본에서 어떤 기술을 배워올지 고민했던 무거운 마음이 해결되는 기분이었다.

작은 치아 하나가 온몸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석태는 치과가 조선에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파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가슴에는 뜨거운 희망이 차올랐다.

3장 일본 치과 대학으로 향하다.

- 조선에 없던 치의학, 나라에 필요한 길을 택하다.

새벽 바다는 아직 어둠을 품고 있었다. 부두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굵은 밧줄에 묶인 배는 낮게 숨을 쉬듯 흔들리고 있었다. 석태와 어머니는 한참을 그렇게 부두 앞에 서 있었다. 발밑에 물결이 철썩이며 부딪힐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어머니와 헤어진다는 것은 석태에게 큰 슬픔이었다.

“몸 잘 챙기고...”

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하고, 익숙한 형뺨 주머니를 건넸다.

주머니 안에는 마른 약재와 실로 꿰맨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주머니를 아무 말 없이 석태의 손에 쥐여 주었다.

“몸에 꼭 지니고 다녀라.”

벧고동 소리가 낮게 울렸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석태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걱정 끼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움되도록 잘 배워서 오겠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어머니를 보자, 석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석태는 서둘러 배에 올라탔다.

갑판 위에서 내려다본 부두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 어머니가 점처럼 작아지자, 석태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석태는 망망대해 검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프면 고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자.’

낯선 나라로 떠나는 배였지만, 해야 할 일을 찾은 석태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앞섰다. 언젠가 다시 돌아와 백성들이 무작정 아픔을 견디기보다는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떠나는 유학 길이었다.

배가 일본 항구에 닿자, 갑판 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짐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했다. 낯선 말소리와 이국적인 풍경에, 타국에 도착했음을 실감했다.

부두에서 신분을 확인하던 관리가 석태를 불러 세웠다.

“어디서 왔나?”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관리의 눈빛이 잠시 달라졌다. 서류를 넘기는 손길도 느려졌다.

“유학생인가?”

“예, 치의학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관리는 석태를 훑어본 뒤 물었다.

“조선 사람이 치과라... 드문 일이군.”

주변에 있던 일본 사람들의 시선이 석태에게 모였다. 그 눈빛에는 호기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하숙집에서도 석태를 바라보는 눈빛은 비슷했다. 낯선 말투, 낯선 옷차림, 그리고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기는 거리감은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석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분명했기 때문이다.

석태는 치과 대학의 교실에 들어설 때마다 다짐했다. 누군가는 총칼로, 누군가는 글로, 누군가는 기술로 나라는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나라 백성들에게도 의술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런 생각 덕분에 석태는 힘든 일본 유학 시절을 잘 버텨낼 수 있었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지만 석태는 굴하지 않고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았다. 석태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치의학 수업은 생각보다 엄격했다. 해부학 시간에는 사람 신체뿐만 아니라 턱과 치아 구조를 세밀하게 배웠고, 실습실에서는 손의 떨림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다. 석태는 일본어로 된 의학 교재를 넘기는 속도는 남들보다 느렸지만, 필기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했다.

“치아는 작아 보이지만,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뿌리와 같다.”

교수의 말이 교실에 울렸다.

‘작은 것을 지켜야 큰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작은 치아를 잘 지키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다.’

공부할 때 가장 고역스러운 일은 바로 실습이었다. 실습은 팀으로 진행되었다. 은근한 따돌림 때문에 석태는조를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석태가 선택한 방법은 손이 더 바빠지는 것이었다. 실습이 끝난 뒤에도 남아서 기구를 닦고, 기록을 다시 읽고, 교재의 가장자리에 질문을 적어 내려가면서 그날의 실습을 몸에 익혔다.

큰 뜻을 가슴에 품고 있는 석태에게 조선인이라는 멸시와 속삭임을 큰 걸림돌이 아니었다. 차별과 외로움은 그를 작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배워야 할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주었다.

보존 치과 실습 시간, 실습실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금속과 약품이 섞인 냄새였다. 이미 몇 번이나 만져본 모형이었지만, 오늘은 손이 더 무거웠다.

“오늘은 충치를 어떻게 다루는지 확인하는 수업이자 시험이다.”

오다나 교수의 말에 교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누군가는 바로 도구를 들었고, 누군가는 금속 기계를 이리저리 만지작 거렸다.

석태는 서두르지 않았다. 모형을 가까이 끌어당겨 눈높이에서 다시 살폈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번.

“왜 시작 안 해? 실습 시작했잖아.”

“알고 있어.”

“시간 안에 해야 하는 것도 알지. 얼른 시작 해?”

석태는 치아 모형을 가리키며 말했다.

“금이... 생각보다 깊어서.”

옆자리 학생은 한심하다는 듯 석태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실습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잊지 마.”

금속 기계가 이에 닿으며 나는 굉음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석태는 마지막까지 치아 모형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금이 난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야 최대한 이를 살리면서 금이 난 부분을 아말감으로 마무리했다. 옆의 이와 잘 어우러지는지 확인한 후에야 석태의 손은 멈췄다.

“조선에서 온 학생은 늘 신중하군.”

뒤에서 지켜보던 오다나 교수의 말이었다.

“왜 충치 있는 부분을 깊게 제거하지 않았지?”

석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평생 써야 하는 치아이기 때문입니다.”

교수의 입가에 미소가 보였다.

“맞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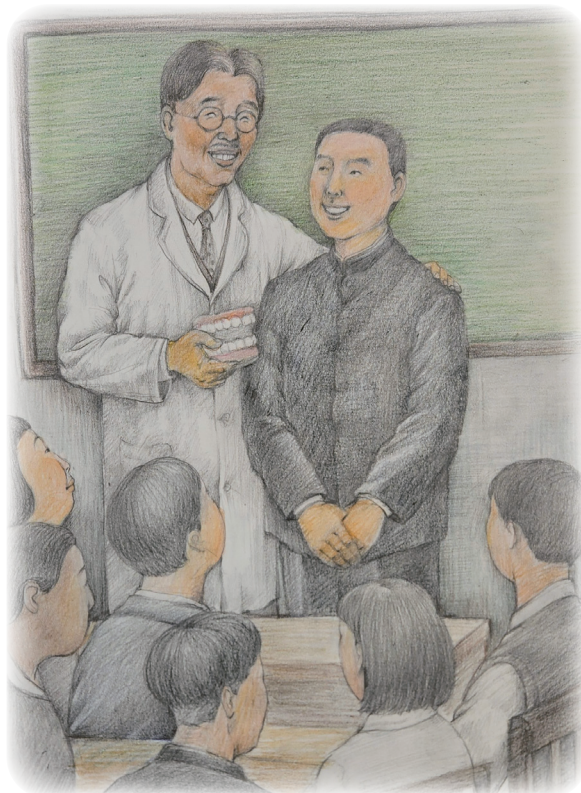
그는 다른 학생들을 둘러보며 말했다(그림 4).

“오늘 수업에서 가장 잘 치료받은 치아다.”

웅성거림이 이어졌다.

교수는 모형을 다시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이를 치료한다는 건 무조건 이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



라 잘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수업이 끝난 뒤, 옆자리에 앉았던 동기는 민망한 듯 말을 걸었다.

“아까 내가 한 방법, 보여 줄 수 있어?”

석태가 치아 모형을 들고 설명하자, 동기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그날 이후, 석태는 혼자만 아니었다.

교수님들의 칭찬과 석태의 흔들림 없는 성실함은 동기들이 석태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꿔주었다. 석태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다만, 사람의 고통을 다루는 기술 앞에서는 차별도, 분노도 의미 없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있었다. 더불어 고국으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다는 신념은 그가 일본 치과 대학에서 버티는 힘이 되어주었다.

비 오는 오후였다. 하숙집 마루에 떨어진 빗방울 소리가 집안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하숙집 주인아주머니가 석태를 불렀다. 석태는 무슨 일인지 의아해서 아주머니 앞에 섰다. 마루 위에는 조선에서 건너온 그릇 몇 점이 놓여 있었다. 주인아주머니는 그릇을 손에 들고 석태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았다.

“함 군, 이 그릇 어떤가? 요즘 조선 그릇이나 도자기가 일본 사람들에게 큰 인기라네.”

석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일본인들은 조선 도자기를 손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도 마음 아팠지만, 하숙집 아주머니 손에까지 우리의 그릇이 들려 있는 현실이 서럽게 다가왔다.

“그런데 왜 이 그릇을...”

석태의 물음에 주인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참! 함군 조선에 가면 이런 그릇이나 조선 도자기 어떤 것이든 좋으니, 좀 구해줄 수 있겠나? 내가 값은 후하게 줄 테니.”

하숙비에 버금가는 그릇과 도자기 가격을 들은 석태는 혼란스러웠다. 조선의 귀한 문화재를 일본인들이 앞다투어 사들인다고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이 오가는 줄 몰랐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석태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다.

뜻밖의 답변에 주인아주머니는 당황한 기색이었다.

상황을 정리하느라 서둘러 그릇을 상자 안에 넣던 주인아주머니는 금이 간 그릇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았다.

“이건 금이 가서 어차피 버릴 거라네.”

쌀쌀맞게 한마디 남기고 상자를 가지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숙집을 나와 길을 걷던 석태는 문득 어릴 적, 길을 걷다 깨진 그릇 조각을 보자기에 소중히 싸 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쉽게 사라진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맴돌았다. 석태는 다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하숙집 주인이 버린 그릇을 집어 들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흩어지고 있는 조선의 그릇과 문화재들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 다짐했다.

1913년 말, 석태는 고국으로 향했다. 그의 가방 안에는 치과 대학 졸업장과 함께, 하숙집 주인이 버렸던 조선의 질그릇 한 점이 들어 있었다. 값비싼 물건은 아니었지만, 석태에게는 지켜야 할 조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석태의 앞날에 꼭 필요한 두 가지 물건을 안고 석태는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다.

4장 서울에 처음 문을 연 ‘이 고치는 집’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의사

석태는 유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치과의사 면허를 신청하러 관청을 찾았다. 새로운 꿈을 펼칠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서 서류를 살펴보던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조선총독부에서 다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석태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저는 이미 공부를 마쳤고, 일본에서 자격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일본이 정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순간, 사무실 안의 공기가 무섭게 가라앉았다.

실력으로 인정받았지만,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벽을 넘어야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석태가 조용히 물었다.

“면허를 받지 못하면, 병원도 열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청 직원의 말은 답답했지만, 석태의 가슴은 짝 막힌 듯 답답했다.

문득, 이를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픔을 참고 서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치과가 필요했다.

망설이던 석태는 고개를 들었다.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 그는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가 열고 싶은 것은 단지 병원이 아니었다. 일본인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며칠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1914년 2월 5일. 조선총독부에서 제1호 치과의사 면허가 발급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석태는 면허증을 손에 쥔 채 잠시 바라보았다. 친구들의 축하가 이어졌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치과가 생기는 건가?”

“그렇다네. 치과 문을 열면서 다른 일도 준비 중이네.”

“다른 일이라니?”

석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치과를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힘을 모아야 해. 일본에 속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로만 이뤄진 치과의사 모임이 필요하네.”

친구들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석태를 바라보았다.

“그게 가능하겠는가? 면허증도 총독부에서 다시 허락받아야 하는 이 시국에...”

석태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어렵겠지. 하지만 누군가는 준비해야 하는 일이네.”

그는 치과 개원과 함께,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는 단체를 만들겠다고 이미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치과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날 밤, 석태는 홀로 남아 생각을 정리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당장 열릴 문이 아니라 언젠가 열릴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우선, 치과 문을 여는데 박차를 가했다.

그해 6월 19일, 함석태는 조선에서 최초로 경성 삼각동에 치과의원을 열었다(그림 5). 3층짜리 목조건물이었다. 사람들은 이를 고치는 집이 있다는 것을 신기해하면서도 발 디디는 것을 어려워했다. 문 앞에 구경꾼들만 서성이는 날도 많았다. 경성 거리에 ‘함석태 치과의원’이라는 간판의 글자도 낯설어했다.

이가 아프면 참고 넘기거나, 약방을 찾는 것이 익숙한 때였다.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그대로였다. 이가 썩고, 붓고, 굴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았다. 치과 문은 한동안 열리지 않았다.

석태는 오늘도 진료 도구를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렸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 앞에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문턱을 넘을지 말지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석태가 먼저 말을 건넸다.

“들어오세요.”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손이 조심스러웠다.

“여기서... 이를 고쳐 줘니까?”

조선 사람이 조선 치과에 들어온 첫 순간이었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오른쪽 볼이 알사탕을 문 것처럼 부풀어 있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남자는 한쪽 볼을 살짝 누르며 말했다.

“밤마다 육신거려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석태는 의자를 가리켰다.

“잠깐 앉아 보세요.”

남자는 입을 제대로 벌리지도 못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잇몸 사이로 고름이 차 있었다. 함석태는 소독수로 입안을 헹구고 고름이 찬 잇몸을 절개해 고름을 빼냈다. 겁을 먹던 남자는 치료가 끝나자, 숨을 길게 내쉬었다.

“지금이 제일 아플 때입니다. 곧 나아질 겁니다.”

깨끗한 거즈를 물려주며 말했다.

“오늘은 이쪽으로 음식을 씹지 마십시오. 며칠 뒤에 다시 와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남자는 몇 번이고 조심스레 이를 맞물려 보았다.

통증은 있었지만, 이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남자는 놀라워했다.

“정말 이를 뽑지 않아도 된다고요?”

남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석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이제 뽑지 않고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지 말고 바로 오세요.”

중년 남자는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날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를 고쳐 주는 곳이 생겼다.’, ‘이를 뽑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입소문을 타고 이웃으로, 또 이웃으로 전해졌다. 덩달아 하루가 다르게 치과 문을 두드리는 발걸음이 늘어났다.

신문에 기사도 실렸다. 조선 최초로 경성 삼각동에 문을 연 치과 이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새로 생긴 ‘함석태 치과 의원’을 두고 ‘경성의 자랑거리’라고 말했다.

석태의 치과는 하루에 문을 두 번 열었다. 치과 문 닫을 시간이 되면, 치과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진료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가 아픈 노인, 아이 손을 꼭 붙잡은 어머니,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아이들까지. 석태는 진료가 끝난 후에는 선생님이로 변신했다. 그가 직접 그린 치아 그림을 벽에 붙여 놓았다.

“이건 이가 썩기 전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건 이가 썩어서 충치가 생긴 이입니다.”

썩은 이를 가리키자, 아이 하나가 불쑥 말했다.

“어? 내 이빨이랑 똑같네!”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석태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는 하루에 두 번, 밥 먹고 나서 꼭 닦아야 해.”

낯선 물건인 칫솔을 들어 보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석태는 벽에 걸린 그림을 가리키며 이를 닦는 방향을 천천히 설명했다.

“이는 아프고 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대답 소리도 우렁찼지만, 어른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석태는 한동안 진료실을 떠나지 못했다.

책상 위 원고지를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펜을 들었다.

‘아이의 이를 지키는 일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아이의 삶을 지키는 일이다.’

1924년, 석태는 동아일보에 글을 실었다.

제목은 ‘구강위생계몽’이었다.

‘이는 아프면 뽑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 문을 열기 전에, 아프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의 이를 방치하면 그 고통은 평생 따라옵니다. 이를 닦는 일은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석태는 환자들을 만나면서 치과 진료실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멀리 퍼트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문에 글을 쓰고, 강연을 하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치과 치료는 여전히 ‘이는 아프면 뽑는 것’으로 여겨졌고, 혼자 그 벽을 넘기 어려웠다.

그때, 석태가 그렇게 바라던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다. 마침내 경성 치과 의학교 첫 졸업식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23명의 치과 전문의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석태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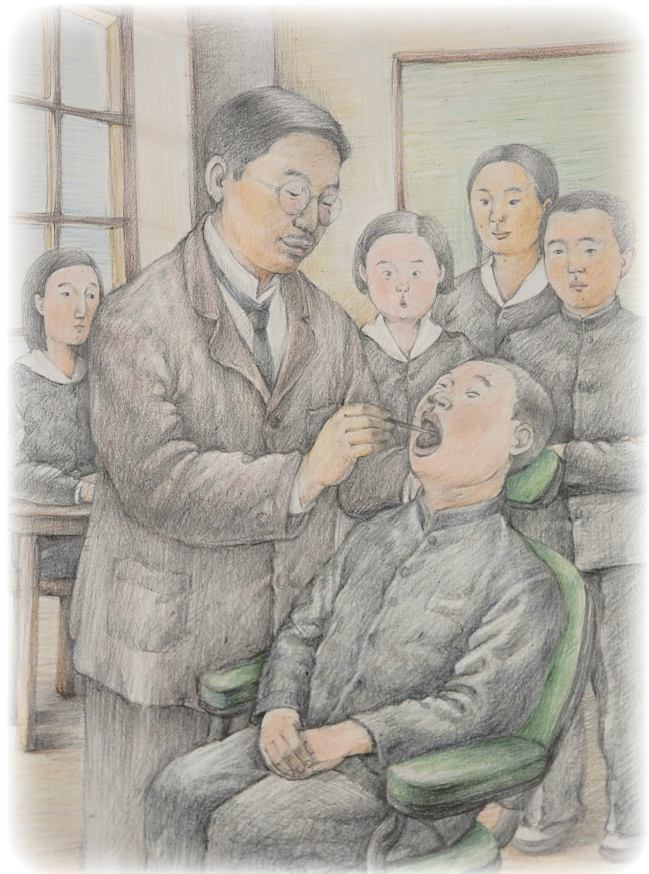
일본의 감시와 방해가 여전했지만, 뜻을 같이한 7명의 치과 의사들이 힘을 모았다. 그리고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만들었다. 겉보기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우리나라 치과의사들로만 이뤄진 첫 단체였다. 그동안 단체를 만들기 위한 석태의 노력이 빛이 나는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킵시다.”

동료들의 추천으로 석태는 초대 회장을 맡게 되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학교부터 찾았다. 아이들에게 이 닦는 법을 알려주고, 무료로 치료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갔다.

석태와 동료들은 일주일에 네 번이나 학교를 돌며 아이들의 이를 살폈다(그림 6). 석태는 치과 치료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가 되기를 바랐다. 그의 진료실 문은 언제나 아이들과 서민들을 향해 열려 있었다.



5장 나에게 주어진 일에 손을 내밀다. - 새로운 가족, 영재의 입양

1923년, 경성의 골목은 늦가을 바람에 젖어 있었다. 진료를 마친 석태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문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중절모를 쓴 남자와 어린 소녀가 서 있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함 선생님, 뵙고 싶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석태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강우규 선생의 손녀입니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강우규. 환갑을 넘긴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을 던졌던 이름. 그리고 끝내 처형당한 독립 운동가의 손녀가 그를 찾아 온 것이다.

“감시를 피해서 다니느라... 더이상 갈 곳이 없어서. 선생님께서 잠시 거두어 주신다면...”

남자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석태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단단함이 보였다.

“이름이 무엇이냐?”

“강영재입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였다.

석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재야, 무엇을 하고 싶으냐?”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네, 배우고 싶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석태의 마음이 흔들렸다.

영재의 뚝뚝함에 웃음이 나왔다.

“그래, 이제부터 한집에서 지내면서 공부도 해 보자꾸나.”

남자는 석태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저는 감시를 피해 바로 떠나야 합니다. 더 머물면 서로가 위험하니까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눈빛에 수많은 말이 오갔다.

그날, 영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그리고 석태의 삶에도 또 하나의 책임이 더해졌다.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입양한다는 것은 일본의 감시와 억압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었다. 주변에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석태는 마음먹은 일을 미루지 않았다.

영재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집에서도 조용히 책을 읽거나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석태는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작은 글씨 두 글자.

‘忍苦(인고)’

두 글자지만 힘이 있었다. 아이의 손에서 쓰였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단단하고 곧았다.

석태는 영재를 불렀다.

“영재야, 이 글... 무슨 뜻이냐?”

영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참는 거요, 그런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거요.”

“왜 이런 말을 썼느냐?”

영재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 끝을 만지작거렸다.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올면 안될 것 같아서요.”

구구절절 설명은 없었지만, 인고라는 두 글자에 할아버지를 잃은 날도, 집을 떠나야 했던 시간도, 두려움을 삼킨 밤들도 모두 담겨 있었다.

석태는 조용히 말했다.

“영재야, 이제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글도 계속 배울 수 있고, 또 다른 가족이 생겼으니 혼자가 아니란다.”

고개를 끄덕이며 석태를 바라보는 영재의 눈빛이 맑았다.

영재는 그렇게 점점 석태의 가족이 되어갔다.

이른 아침, 석태는 영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길을 걸었다. 석태는 어릴적 아버지의 손을 잡고 미카엘 선교사를 만나러 가던 날이 떠올랐다. 석태는 아버지처럼 영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석태는 학교 가는 첫 날, 영재를 이화 고등보통학교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교문 안에서는 또래 아이들이 웃으며 오가고 있었다.

“영재야, 여긴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다. 너 자신을 지키는 법도 잘 배우거라.”

영재는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무엇보다 글쓰기에 재능을 보이며 석태에게 또 다른 행복을 안겨주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1932년, 장마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유치장 안은 늘 눅눅하고 어두웠다.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낮은 밤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땀 냄새와 습기가 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곳에 한 남자가 있었다.

안창호.

독립운동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몸이 쇠약해져 앓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안창호는 앞니 몇 개만 남아 제대로 씹지 못했고, 딱딱한 음식은 입에 대지도 못했다. 물에 가까운 죽으로 겨우 끼니를 이었다.

“안 선생, 조금이라도 씹으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간수가 말했지만, 안창호는 고개를 저었다.

입을 벌릴 때마다 고통이 밀려왔다. 고문을 겪으며 맞추었던 틀니는 이미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은 이 손에 꼽을 만큼이었고, 극심한 치통으로 생활 자체가 힘들었다.

그날 오후, 유치장의 철문이 덜컥 열렸다.

“치과 의사 함석태입니다.”

간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허가증부터 보여주시오.”

석태는 말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잠시 후, 쇠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안창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석태는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런 곳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군요.”

함석태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의 몸은 이미 한 분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희망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몸은 약해졌어도, 뜻은 꺾이지 않았소.”

“그 뜻이 계속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유치장 안은 여전히 어둡고 눅눅했지만, 그곳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어우러져 장엄한 의식을 치르는 듯 했다.

함석태는 먼저 안창호 선생의 입안부터 살폈다(그림 7). 잇몸 안에는 아직 제거하지 못한 이 조각이 박혀서 잇몸에 고름이 가득 차 있었다. 남은 치아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석태는 입 안을 살피며, 이런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숙연해졌다.

“틀니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이를 살리면서 통증부터 줄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다시 생각할 힘도 생길 것 같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자, 유치장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럴수록 함석태의 손놀림은 단정하고 정확했다.

‘이곳이 감옥이라도, 나는 의사다.’

그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안창호 선생을 치료했다.

안창호의 식사는 여전히 유동식이었지만, 뺏조각을 제거한 뒤 상처는 차츰 아물기 시작했다. 며칠 뒤 안창호는 다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기운을 되찾았다. 그렇게 유치장에서 치료는 꼬박 석 달 동안 이어졌다.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과 나라를 지키는 일은, 결국 같은 길이 아닐까.’

석태는 석 달 동안 유치장을 다니면서 드는 생각이었다.



일본에서 어렵게 배워 온 치의학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다짐, 그리고 하나둘 모으기 시작한 골동품과 문화재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마음은 사람의 몸을 넘어 사라져 가는 조선의 흔적을 향하고 있었다. 안창호 선생을 치료하면서 나라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석태의 마음안에서 커가고 있었다.

안창호 선생이 회복되자, 그는 일본에서 가져온 질그릇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하나씩 모아 둔 골동품을 병원에 전시하기 시작했다. 함석태는 그렇게, 치료하는 의사이자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6장 깨진 물건에 담긴 이야기 - 문화재를 지켜라.

함석태는 이를 돌보는 치과의사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진료실 밖을 향해 있었다. 신문과 잡지에 글을 쓰며 시대의 아픔과 구강 건강에 관해 이야기했고, 진료가 끝나면 골동품이 있다는 소문을 따라 길을 나섰다.

나라의 문화재들이 제 주인을 잃고 떠돌던 시절이었다. 혈값에 팔려나가거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 일본으로 넘어가는 일도 많았다.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

석태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종종 일본으로 향했다.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흩어진 우리 문화재의 흔적을 직접 보고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석태는 어디를 가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바로 ‘금강산 연적’이었다. 가장자리는 살짝 깨져 있었지만 맑고 청아한 빛깔이었다. 완전하지 않았지만, 석태는 그래서 연적이 더 애뜻했다. 손에 쥐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깨졌지만 버려지지 않은 것,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쓰임이 있는 것. 그 시절 조선을 닮은 물건이기도 했다. 나라 역시 상처를 입었지만, 결코 버려질 존재는 아니었다.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을 수 있다면, 어디든 가겠다.”

석태는 그렇게 결심했다.

일본으로 가는 연락선을 탈 때마다 보따리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항구에는 늘 일본 형사들이 서 있었고, 여행객들은 차례로 보따리를 열어야 했다.

“이건 무엇입니까?”

형사가 물었다.

석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보따리 속 물건을 꺼냈다. 손바닥만한 작은 연적이었다(그림 8).

“제가 쓰는 연적입니다.”

형사는 연적을 이리저리 돌려 보았다. 깨진 가장자리와 수수한 빛깔. 값나가 보이는 물건은 아니었다.

“왜 이런 걸 소중히 싸서 들고 다니는 거요?”

의심에 찬 눈초리로 형사가 물었다.

석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입니다.”

낡은 연적을 손에 쥐고 이리저리 살펴보던 형사는 더 묻지 않았다. 연적은 다시 석태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일은 여러 번 반복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형사들은 석태의 보따리를 열어 보자마자 서로를 힐끗 보며 말했다.

“아, 또 그 사람인가?”

“골동품에 미친 조선인이라지.”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지만, 석태는 개의치 않았다. 그에게 연적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사라져 가는 시간을 붙잡는 작은 손길이었다.

그는 알았다. 지켜낸 작은 것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역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석태는 항상 연적을 품에 넣고 길을 나섰다. 그날도 경성거리를 걷고 있었다. 진료를 마친 뒤였다.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한쪽에 몰려 있었다. 웅성거림 사이로 낮은 소리가 섞여 들렸다.

쾅!

망치가 돌에 부딪히는 소리였다.

석태는 걸음을 멈췄다.

“저게 뭐야?”

누군가 놀란 듯 말했다.

사람들 틈 사이로 커다란 문이 보였다. 아니, 서 있었다기보다 무너지고 있었다.

서십자각이었다.

경복궁의 서쪽을 지키던 문.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 온, 사람들이 특별히 바라보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 있던 문. 그 문 앞에 일본인과 인부들이 줄을 맞춰 서 있었다. 망치를 들고, 돌을 떼어 내면서 기둥을 부수고 있었다.

“행사 때문에 걸리적거린다고 없앤다고 하던데.”

“세상에, 망조가 들었네. 행사에 방해된다고 문을 부순다고!”

망치를 내려칠 때마다 석태의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다.

저 문은 단지 돌과 나무로 된 건물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드나들며 비를 피하고, 햇볕을 가리고, 말없이 시간을 견뎌온 자리였다.

석태는 일본인 인부에게 다가갔다.

“이 문을 다 허무는 겁니까?”

인부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행사에 방해가 된다니 어쩔 수 없지요. 이미 폐기물로 넘겨졌습니다.”

“폐기물이라니요?”



석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문짝은 제가 사겠소.”

그렇게 서십자각 대문짝이 석태의 치과에 들어오게 되었다.

서십자각 대문짝을 지켜낸 뒤에도 석태의 마음은 쉬지 않았다. 허물어지고, 옮겨지고, 잊히는 것들이 경성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석태는 급히 전할 말이 있다는 이태준을 다방에서 만났다. 작가로 활동하고 있던 이태준은 문화재 때문에 더 가까워진 사이였다. 찻잔을 사이에 두고 이태준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는 지인이 철물점에 들어온 문짝 하나가 예사롭지 않다는데…”

“어떤 물건인데요?”

“고종 황제 즉위 사십 주년을 기념해 세운 비석 앞을 막고 있던 철문이라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가 철물점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선생, 지금 바로 가서 확인해야겠습니다.”

이태준의 말대로 청경기념비를 지키던 문짝은 철물점 한쪽 구석에 암전히 놓여 있었다. 석태는 옷돈을 주고 그 철문을 사들였다(그림 9). 철문은 오래되어 곳곳이 삭아 있었고 경첩은 빠져버렸다.

석태는 청경비를 지키던 문 앞에 섰다. 문 앞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청경비 앞에서 삼일절에 울려 퍼지던 만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했다. 그렇게 석태는 사라질 뻔한 문화재를 또 구해냈다.

작은 소품부터 김홍도의 ‘구룡포’를 시작으로 화가 김수철의 그림, 추사 김정희의 글씨까지. 조상의 시간과 정성 어린 손길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씩 석태의 치과에 모였다.

치과에 치료받으러 왔던 환자들은 뜻밖의 물건들을 구경하고 돌아가곤 했다. 석태의 치과는 아픈 이를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사라져 가는 것을 잠시 붙잡아 두는 공간이기도 했다.

서십자각의 문짝, 청경비의 철문과 함께 붓 대신 손가락으로 그린 그림도 인기가 좋았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고개를 갇웃하면서 무엇을 그린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손끝으로 찍어 낸 선들은 투박했지만, 산의 웅장한 힘과 바람의 흐름이 또렷해서 석태가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했다.

그 시절, 경성에서는 그림과 공예품을 모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리가 많았다.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이 뒤



섞인 공간이었다. 석태는 전시회가 있다고 하면 참가하려고 노력했다. 모아놓은 문화재를 많은 이들에게 선보일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1938년 조선명보전람회를 시작으로 1940년 5월 조선미술관이 주최하는 십대가산수풍경화전 등 크고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했다. 전람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수화와 지두화를 세상에 내놓았고 큰 인기를 끌었다. 석태는 수집한 물건은 잠시 보관할 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시장에 걸린 그림을 보며 사람들은 그 안에 담긴 시간과 옛사람들의 기운을 느끼는 듯했다. 선조들이 전해주는 힘을 얻고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석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화재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비로소 살아난다고 믿게 되었다.

그림과 골동품이 늘어나면서 석태의 치과는 점점 비좁아졌다. 그동안 모아 온 물건을 안전하게 둘 자리도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태는 달구지에 실려 가는 오래된 장롱 하나를 만나게 된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구지를 따라 나섰다. 쌀가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쌀 한 되를 사면서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이 장롱…. 오래됐습니까?”

쌀가게 주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 저거요? 오래됐죠. 좁은데 자리만 차지하고.”

함석태는 장롱 문짝을 살짝 열어보았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짜 맞춘 틀에 세월이 흘러도 흐트러지지 않은 나뭇결까지. 귀한 물건이었다. 석태가 관심을 보이자 주인의 표정이 달라졌다.

“가격은 후하게 드릴 테니 저에게 파시지요?”

쌀가게 주인은 막상 팔려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석태의 눈치를 보며 한마디 했다.

“그래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물건인데 팔 수는 없지요.”

석태는 주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다.

석태는 잠시 망설였다. 장롱을 들여오려면 돈을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럼 이렇게 하지요. 제가 이 장롱 대신 신식 장롱을 하나 사 드리겠습니다.”

“새 장롱을요?”

“네.”

쌀가게 주인은 놀란 눈으로 석태를 바라보았다.

그날, 석태는 새 장롱 값을 치르고 오래된 장롱 하나를 얻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태는 사람의 이를 고치는 것처럼 나라의 기억을 돌봐야 하는 것도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뿌듯함이 석태를 또 움직이게 만들었다.

어렵게 구한 장롱은 석태의 치과 한쪽에 놓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켜야 할 이야기들을 가득 채웠다.

7장 우리의 이야기를 지키자!

- 다시 고향 영변으로

1945년 초여름, 시원한 밤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함석태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마주 앉았다. 작가 이태준, 의사 김용준과 배정국, 화가 길진섭. 문화와 예술을 아끼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차 따르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요즘 이 귀한 것들을 꺼내 놓고 보는 게 쉽지 않네요.”

누군가 말했다.

이태준이 웃으며 답했다.

“그래서 오늘 모인 거 아닙니까.”

함석태는 벽에 기대어 놓은 그림을 가리켰다.

“겸재 정선의 산수화입니다. 거친 손놀림에 산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옆에 김홍도 그림은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배정국이 덧붙였다.

“추사의 글씨는 볼수록 그의 단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석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소치 허련의 그림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강한 여운이 남는 그림입니다.”

잠시 웃음이 오갔다.

이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작품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함 선생님이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끝까지 지켜야죠. 이건 우리 것이기 전에 다음 세대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귀한 것들을 잘 지켜야 할 것인데... 소개령이 내려진다는 소문일 돌던데요.”

이태준이 낮게 말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굳어졌다.

“소개령이면 도시를 비우고 각자 고향을 돌아가라는 명령인데, 폭격을 대놓고 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닙니까?”

김용준이 말을 이었다.

함석태는 말없이 방안을 둘러보았다. 조금 전까지 기적이라 불리던 물건들은 지켰을 때 의미가 있었다. 소개령 이야기가 떠돈 후에 석태는 이 문화재들을 어디로 옮길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다 고향으로 옮겨다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옮기지 않으면 다 사라질지도 모르니.... 이 건 제 개인 소장품이 아니라 조선이 남긴 시간입니다.”

“북쪽이라고 안전할까요?”

이태준이 물었다.

“경성보다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 안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석태의 대답에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1945년 여름, 일본은 패망이 가까워질수록 폭격을 쏟아내며 조급해졌다. 덩달아 미군의 폭격도 거세지고, 경성의 하늘은 며칠째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다. 불안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함석태의 시선은 방 안 가득 쌓인 상자들 향했다. 조선의 그릇, 오래된 불상, 조각, 이름 모를 장인의 붓글씨 하나 하나가 사람처럼 숨을 쉬는 듯했다.

“여기 두면 다 타버릴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내는 그 말의 뜻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치과도 당신한테 소중한 곳이잖아요.”

“치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이걸... 한 번 사라지면 끝이야. 문화재들은 어떻게든 지켜야 하니까.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내가 문화재들을 싣고 바로 따라가겠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따로 갑니까? 같이 가요. 그리고 미군까지 합세해서 난리라던데.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영변까지 운반한다는 건지...”

“다 길이 있으니, 애들에게 기별하고 얼른 짐부터 챙기시오. 소개령이 잠잠해지면 다시 경성으로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십시오.”

아내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이 문화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석태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트럭을 구했다. 연줄을 찾고, 사정을 설명하면서 어렵게 트럭 세 대를 마련했다. 문화재는 3대의 트럭에 나눠 실었다(그림 10). 부서지지 않게, 젖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동료들은 석태가 평생 모아 온 문화재들을 보자기에 싸서 안전하게 담는 일을 도왔다.



“같이 가요.”

어느 정도 짐이 정리되자, 아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다.

석태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먼저 고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소.”

그 약속이 지켜지길, 둘은 서로 바라보며 애써 믿었다.

어렵게 도착한 북쪽의 공기는 오래 머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흥흥한 소문이 돌았고, 길목마다 총을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일일이 검문하고 있었다. 하루하루 불안에 떨던 석태는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운전기사를 구하기 힘들어 옷돈을 주고 어렵게 3대의 트럭을 마련했다. 트럭이 마련되자, 함석태는 길을 나섰다.

1946년, 영변의 새벽. 짐이 트럭에 실려 있었다. 손자들은 먼저 경성으로 떠나고 석태는 해주를 거쳐 경성으로 내려갈 계획이었다.

엔진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트럭은 말없이 남쪽을 향해 달렸다.

며칠 뒤, 해주 외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트럭은 멈춰 섰다.

“정지!”

총을 멘 병사가 다가왔다.

“어디로 가는가?”

“남쪽으로 갑니다.”

“혼자인가?”

“그렇소. 나는 경성에서 활동하던 치과의사요, 치료해야 할 환자들이 있으니 보내주세요.”

병사는 트럭 뒤를 가리켰다.

“이 차들에 실린거는 다 뭐요?”

“문화재입니다.”

“그 말은 믿으라는 거요? 트럭에 짐을 내려서 확인하겠소.”

병사가 비웃듯 말했다.

다른 병사가 트럭에 올라서서 보자기를 풀려 했다.

“그만하십시오. 깨지면 안 됩니다.”

병사가 총을 고쳐 잡았다.

겉을 먹은 운전기사는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자고 했다.

함석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안엔 사람들이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 보내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으로 갈 수 없으니 돌아가시오.”

“저는 남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움직이면 사살이다.”

트럭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함석태의 기록은 없다.

다만, 그가 지키려 했던 문화재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말하고 있다. 누군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고.
그가 북쪽으로 옮겨 두었던 문화재 가운데 몇 점이 훗날 북한에서 소개되었고 남북교류전에서 선보여진 사실만이 남아 있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그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지금 우리 곁에 있다.
그것이 함석태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교신저자〉

- 글 : 김영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27번길 24
062-672-1939
E-mail : yeongran0278@hanmail.net
- 그림 : 오혜경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80번길 20 Joy 미술
010-7175-8764
E-mail : ohahaha9981@naver.com

대한치과의사학회 회칙(1960. 10. 7 창립)

1984. 6. 30 제정

1986. 10. 14 인준

1987. 3. 11 개정, 1990. 5. 28 개정, 1995. 5. 23 개정

1999. 4. 8 개정, 2012. 3. 13 개정, 2016. 6. 21 개정

제 1 장 총 칙

- 제1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학회(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라 칭한다.
- 제2조 본 학회는 과학사 특히 치과의학사에 관한 연구를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적 유대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본 학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하고, 본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도 또는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사 업

- 제4조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집담회, 학술연구발표회
 2. 치과의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연구
 3. 연구논문의 인쇄배포
 4. 해외사계와의 학술교류
 5. 회원의 친목

제 3 장 회 원

- 제5조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된다.
- 제1항 정회원은 치과의사학에 관심이 있는 치과의사로 소정의 입회절차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2항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헌이 많은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 제6조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본회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항 결정된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 본 학회의 회칙 6조의 의무를 준수한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제1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2항 회원은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기 구 및 선 거

- 제9조 본 학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고문 약간명
2. 명예회장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5. 총무 1명
6. 이사 약간명
7. 감사 2명

- 제10조 본 학회는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11조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역임자나 덕망있는 분으로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정기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된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 제12조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신한다.

- 제14조 총무 및 각 이사는 아래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총무부 : 각종 행사 진행, 회원관리, 기타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2. 재무부 : 수입, 지출예산의 편성 및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재정 업무 일체
3. 대외협력부 : 대내외적인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
4. 정보통신부 :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해 학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5. 섭외부 : 대내외적인 섭외에 관한 제반 업무
6. 학술부 : 학술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7. 교육부 : 본 학회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매체 개발에 관한 제반 업무
8. 국제부 : 국제교류에 관한 제반 업무
9. 편집부 : 학회지등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
10. 기획부 : 미래사업에 관한 기획 업무 일체
11. 정책부 : 본 학회 유관 제반 정책 연구 업무
12. 연구부 : 치과의사학 분야에 관한 제반 업무
13. 법제부 : 학회 운영관련 법률적 제반 업무
14. 총무간사 : 총무이사의 제반 업무 보좌

- 제15조 감사는 필요에 따라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 종료 1년 전에 선출하며 감사는 임기말 총회 때 선출한다.
- 제17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도 있다.
- 제18조 회장단 결원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선한다. 단,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감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최연소 고문으로 보선한다.

제 5 장 총 회

- 제19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되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총회 전 1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진행한다.
- 제21조 총회의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석 3분의 2가 동의하여야 가 결된다.
- 제22조 총회에서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칙에 관한 사항
 - 제2항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제3항 감사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제4항 사업에 관한 사항
 - 제5항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 제6항 회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 6 장 임 원 회

- 제23조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제24조 임원회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자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 제25조 회장은 총무 및 이사로 하여금 각 부를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26조 임원회의 의결로 필요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할 별도 명칭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임원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전반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 제28조 본 학회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9조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장 부 칙

- 제30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 제31조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 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33조 본 학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일반 관례에 준해 회장이 결정한다.

제 8 장 세 칙

1. 연회비 : 6만원
2. 평생회비 : 10년간의 연회비

대한치과의사학회지 투고규정

1. 투고 자격

대한치과의사학회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2. 투고 원고의 종류

본 학회지에 게재 가능한 원고는 본 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치의학과 관련된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투고된 원고는 타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것은 불허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원고의 게재

투고예정 원고의 학문적 의의, 논리성, 창의성, 독창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한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이나 보완 그리고 일부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게재될 수 없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 원고 중에서 게재가 불가능한 것은 그 이유와 함께 원고를 저자에게 반송한다.

4. 원고는 한글 또는 영문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단어를 한글로 기록하고 번역이 곤란한 것을 영문으로 기록하며 번역어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첫 인용 단어 다음에 괄호로 원어를 병기할 수 있다. 또한 투고규정에 없는 용어는 치의학회 용어집에 준용한다.

5. 원고의 첫 장

원고의 제목, 각 저자의 소속, 저자 이름, 초록, 연구비 지원 내용(필요한 경우) 순으로 작성한다. 원고의 제목은 간결하며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서, 원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저자는 가능한 총 5명 이내로 한다.

6. 연구비 지원

연구비 지원 내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한하며, 첫 장 하단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7. 초록

초록은 한글 원고인 경우에는 영문 초록을, 영문 원고인 경우에는 한글 초록을 작성한다. 초록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목적, 재료와 방법, 결과, 그리고 결론 등이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인 자료

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분량은 한글인 경우에는 500자 이내로 영문인 경우에는 20단어 이내로 한다. 단, 약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초록 하단에 주요 단어(key words)를 6개 이내로 가나다(영문인 경우에는 알파벳) 순으로 작성한다.

8.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

연구에 이용된 상품의 상품명을 인용할 경우에는 처음 인용 시에 상품의 이름, 제조 도시 명, 나라 순으로 괄호 안에 기록한다.

9. 원고의 제출

원고는 HWP 2007 이상으로 작성하며 글씨체는 신명조, 글씨 크기는 10point, 줄간격은 160으로 작성하여 페이지가 기록된 2매의 복사본과 원본이 입력되어 있는 CD 또는 file을 함께 제출한다. 원고의 양은 원저인 경우에는 15쪽, 증례 보고 등 기타 원고는 7쪽 전후로 하며 원고의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수정을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고의 구성은 본 학회지 편집 방향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원고의 작성 순서

원저인 경우는

- (1) 제목
- (2) 소속 및 저자명
- (3) 연구비 지원내용(필요한 경우에만 첫 장 최 하단에)
- (4) 서론
- (5) 연구 재료 및 방법
- (6) 연구 성적
- (7) 총괄 및 고안(고찰)
- (8) 결론(또는 요약)
- (9) 참고문헌
- (10) 교신저자
- (11) 그림 설명 및 그림(필요한 경우)
- (12) 초록, 주요 단어

순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 증례, 종설 등의 원고도 이에 준하여 작성한다.

11. 참고문헌

원칙적으로 출판되었거나 게재 완료된 문헌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급적 초록(abstract) 인용은 피한다. 본문 중

에서는 인용 순서대로 인용문 끝에 어깨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데 문장인 경우에는 쉼표나 마침표 뒤에, 그리고 특정 명사나 연구자 이름인 경우에는 바로 그 뒤에 번호를 붙인다. 한 인용문에서 세 개 이상 참고문헌이 제시될 경우에는 처음 문헌 번호와 마지막 문헌 번호를 ‘-’로서 표시한다(예: -라고 주장했다.^{3,9-13}). 본문 중에서 저자는 성만 기입하는데 두 명인 경우에는 모두 병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만을 명기하고 나머지는 ‘등’으로 표기한다(예: 김과 박²는, 김 등²는). 참고문헌은 결론 및 요약 뒤에 본문에서 인용된 번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제목, 잡지명, 발행년도, 권(호), 페이지 순으로, 책인 경우에는 저자명, chapter제목, editor이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연도, 인용페이지 순으로 작성한다. 국내문헌도 영문으로 표기한다. 저자가 다섯명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 세 명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et al로 한다. 저자명은 성, 그리고 이름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예: Sorensen JA, Cho IH), 가능하면 본지 게재된 논문을 2회 이상 인용한다.

예) Iwama CY, Preston JD. Cobalt-chromium-titanium alloy for removable partial dentures. *Int J Prosthodont* 1997;10:309-317

예) Hilton TJ. Direct posterior composite restorations. In: Schwartz RS, Summitt JB, Robbins JW(eds). *Fundamentals of Operative Dentistry*. Chicago: Quintessence; 1996:207-208

예) Jang JS, Jeong YT, Chung CH. Finite element stress analysis of implant prosthesis of internal connection system according to position and direction of load. *J Korean Acad Stomatog Func Occ* 2005;21:1-14

12. 사진

사진의 크기는 3×5 inch를 기본으로 하고 사진 뒷면에 연필로 사진 번호와 상하 구분을 사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가볍게 기록한다. 사진은 현상도가 우수한 두 장의 광택 인화지 사진, 또는 편집이 완성된 고해상도 그림파일 형식으로 보낼 수 있다. 사진은 저자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반송하지 않는다. 가능한 칼라 사진은 두 페이지 이내로 제한한다.

13. 도표 및 그래프

컴퓨터로 작성된 것을 사진이나 레이저 프린터로 출력하여 제출한다. 손으로 그릴 경우는 조잡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조잡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반송하여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4. 사진/그림 설명

필요할 경우 다수의 사진/그림 설명은 교신저자 뒤로 배열하여 작성하고, 현미경 사진은 배율, 염색 방법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15. 사용 단위

사용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타 단위를 사용한 경우에는, 처음 기술 시에 괄호 안에 미터법으로 환산하여 기록한다.

16. 교신저자

원고의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영문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다음에 기입해야 한다. 내용은 추후에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름, 소속, 주소, 팩스, e-mail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예) Corresponding author

Kung-Rock Kwon

Department of Prosthodontics,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ro, Dongdaemun-gu, Seoul, 02447, Korea

Tel: +82-2-958-9343; Fax: +82-2-958-9349

E-mail address: krkwon@khu.ac.kr

17. 게재료

게재료 부가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교신저자에게 신청되며, 게재료는 기본 게재료 이외에 원고 추가분량, 또는 컬러 사진 게재 등에 필요한 추가 경비가 포함될 수 있다. 별책은 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실비로 제공한다.

18. 원고마감

원고는 매년 12월 첫째주 및 6월 첫째주까지 접수된 것을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및 순서를 정한다.

19. 원고 접수

원고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치과기공학회 편집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권 훈

Tel : 062-600-2540

e-mail : 2540go@naver.com

大韓齒科醫史學會 임원 명단

명 예 회 장	이 해 준
회 장	권 훈
부 회 장	김 준 혁
부 회 장	변 웅 래
총 무 이 사	박 경 오
재 무 이 사	김 성 영
학 술 이 사	박 정 철
학 술 이 사	손 병 진
학 술 이 사	유 재 식
국 제 이 사	조 서 진

국 제 이 사	박 대 규
기 획 이 사	김 호 영
기 획 이 사	김 아 현
공 보 이 사	오 유 향
공 보 이 사	장 향 길
정 책 이 사	송 호 택
정 책 이 사	김 동 형
감 사	이 주 연
감 사	강 백 면

大韓齒科醫史學會誌

Korean Journal of the History of Dentistry

2025년 제44권 제1호 통권 49호

Vol. 44, No. 1, 2025

발 행 인 : 권 훈

인 쇄 일 : 2025년 12월 23일

발 행 일 :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처 : 대한치과의사학회

61665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31

미래아동치과

전화) 062-672-2543, 팩스) 062-673-2543

<http://dentalhistory.or.kr>

편집인쇄 : 도서출판 의치학사

Publisher : Kweon, Hoon

Printig date : December 23, 2025

Publication date : December 31, 2025

Published by :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istory

Mirae Children's Dental Clinic, Daenam Daero 131,

Namgu, Gwangju, 61665, Korea

Tel : +82-62-672-2543, Fax : +82-62-673-2543

<http://dentalhistory.or.kr>

Edition & Printing : Dental and Medical Publishing

6.3% Acetic acid

Polyoxyethylene (20)
Sorbitan monooleate



- 01 Smear Layer 제거
- 02 안정적인 근관장 측정
- 03 강력한 항바이오필름
- 04 세정 및 윤활효과

언제 사용하나요?

- 석회화가 심한 근관 -

파일링 시간을 단축시키고,
근관을 잘 따라가도록 도와줍니다.

- 심한 감염 근관 -

약산과 계면활성제 성분으로
바이오필름 제거 및 제어에 효과적입니다.

Caries Diagnosis

스마투스 충치진단기

가벼운 터치로 빠르게 충치상태를 진단하세요!



CLEAR 정확한 진단

광센서를 이용한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치아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ASY 쉬운 사용법

본체에 연결된 프로브를 치아에 가볍게 접촉하면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수치가 표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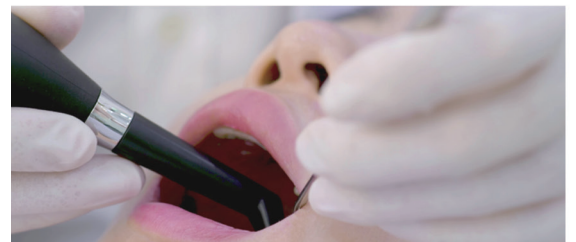
FAST 신속한 결과확인

센서들의 빠른 결과값 도출로 0.5초 이내에 바로
측정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APP 앱과 연동 (옵션)

클라우드 기반의 앱을 이용하여 환자의 치아 우식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PC와도 연동할 수 있습니다.



Simple & Digital
SD Implant

S 수술이 D 다르다!

전치부 특화 TL Mini 출시
Platform Ø3.5



Ø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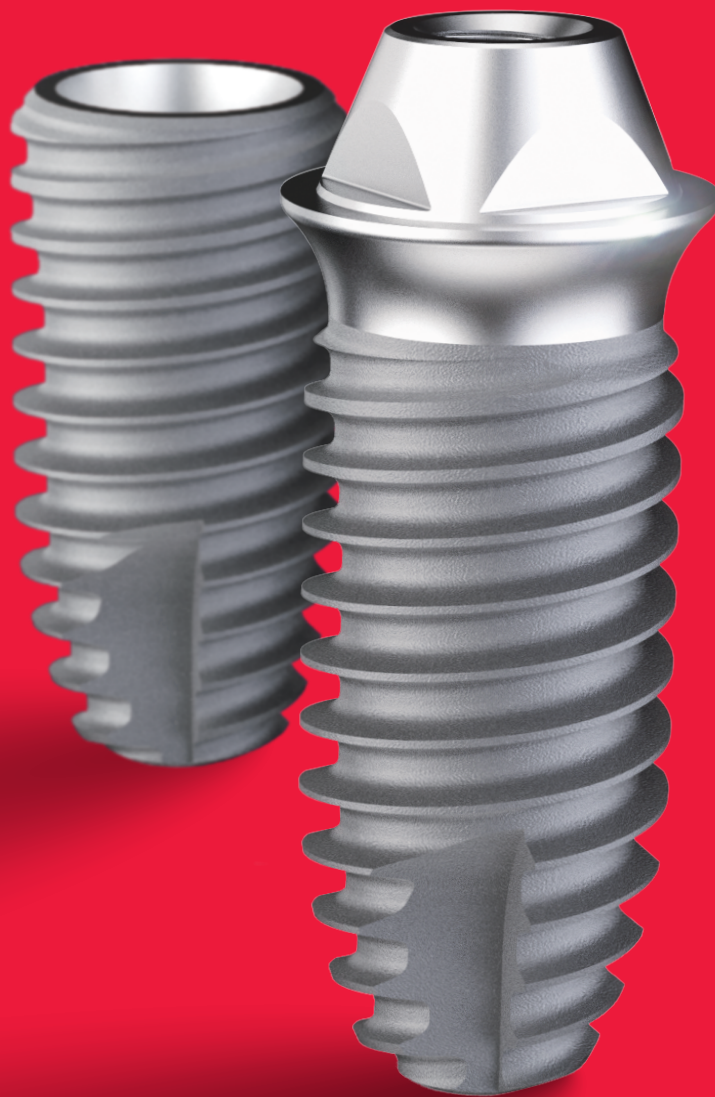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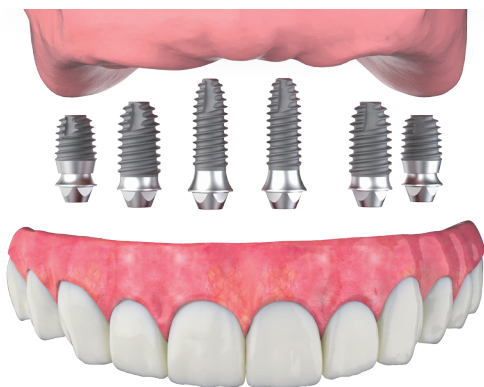


Ø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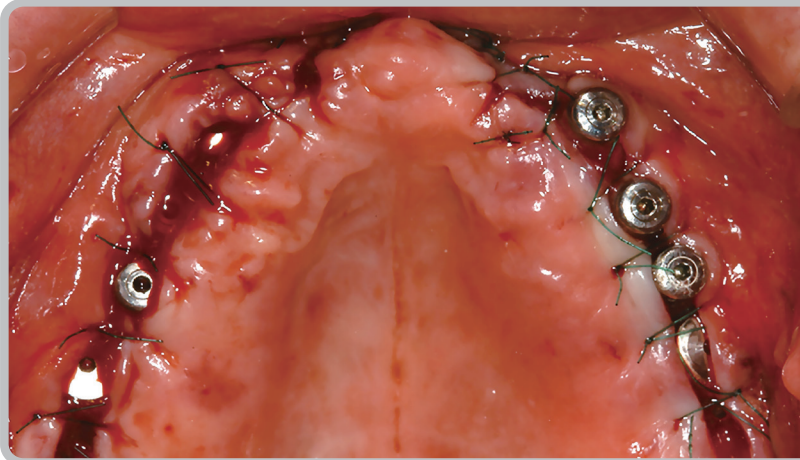


Ø3.6

디지털 All-on-X 최적화



미래 임플란트 치료의 표준! 최소침습 임플란트 치료는 이제 필수입니다.



Conventional
Surgery System



AMII
Minimally Invasive
Surgery System



임상가
한줄평



Incision, Flap, Suture 최소화로 시간이 엄청 짧아요, 환자도 엄청 좋아 하네요.

Dr. Seol

1~2개 임플란트 식립은 환자들이 너무 빨리 끝나 당황해 하네요.

Dr. Lee

열었으면 시작도 못 할 수술들이 열지 않으니 간단해진다는 것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Dr. Kim

왜 이제 시작했나 싶네요. 20년 넘게 왜 그리도 힘들게 수술을 했는지... 환자를 위해서도 진작에 바뀌어야 했네요.

Dr. Ryu



포인트 임플란트의 특허 받은 UV 광활성 임플란트

포인트 UV 임플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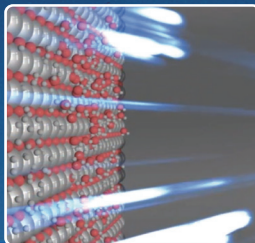
초 친수성

뛰어난 생체활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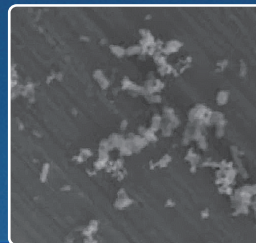
안티에이징 효과

표면노화(탄화수소)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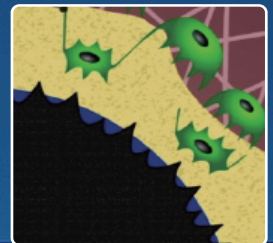
세포반응성 극대화

표면전하 회복



세균부착 억제효과

표면의 항균성유지



빠른 골형성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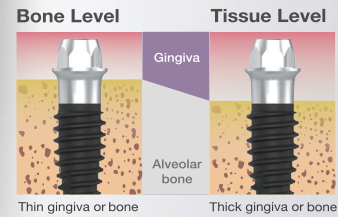
골유착 속도 증대

임플란트 주위염에 강하고 좁은 골폭에 최적화 된 임플란트

특허등록 (2023. 11. 06)



- Tissue-level type with an external cone hex connection design
: No sinking! Digital friendly!
- Platform
: Narrow(D 3.5/3.75) & Regular (D 4.8)
- NO Micro-Gap Movement
2.0mm
External Cone Hexa
- 2.5mm
Smooth Surface
- 충분한 Biologic Width의 확보
Peri-Implatitis에 강한 구조
- Multi-level Implant
Tissue Level & Bone Level 가능



30년의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 경험으로 탄생한 TLplant!
안전하고 간편한 시술!
특히 고령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쿠보텍의 기술로
더 나은 임플란트 미래를 함께하세요.

TL plant CASE



1. Implant placement in severely thin ridge of orthodontic patient



3. The simultaneous sinus lift and TLplant plac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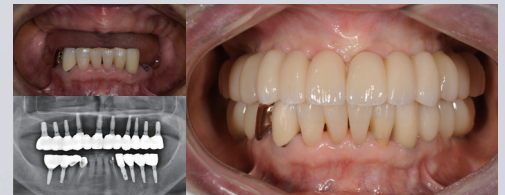
5. Immediate TLplant placement in maxillary narrow ridge



2. Immediate implant placement with transmucosal bone graft



4. Immediate implant placement in narrow extraction socket



6. Full mouth implant placement in severely resorbed Mx and Mn

NT Clear Varnish

5% Sodium Fluoride Varnish (22,600 p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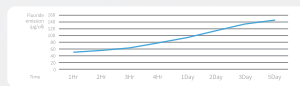
0.4ml | 32ea / 200ea



- 치아에 도포 후 바로 가글 할 수 있는 불수용성 바니쉬
- 쓴맛이 없고 달콤한 과일향 첨가(사과, 딸기, 복숭아, 오렌지)
- 우수한 치아 코팅력, 흡착력으로 장기간 불소 방출에 유리



우수한 상아세관 봉쇄능 (지각과민 저지)



지속적인 불소 방출 효과



ABSOLUTELY VERSATILE

EsFlow[®] PLUS Injectable

Light-Cured Flowable Composite Resin

**Stack as you like,
Flow as you need.**



No Bubble



No Oozing



No Hassle



(주)스피덴트
www.spident.co.kr

고객지원팀

1644-3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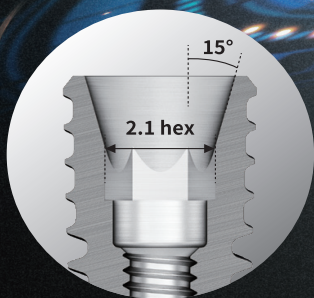
KS system

오스템의 새로운
Key Solution

더욱
강력해진
임플란트!

피로 파절 강도가
기존 제품 보다
2.4배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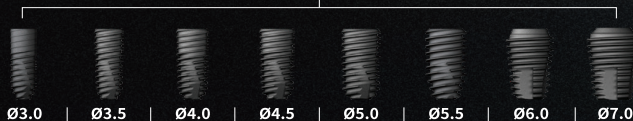
- 15° Morse Taper Stability
- Deep Connection Stability
- Thick wall Stress



One Platform



2.1 hex



Fixture의 모든 직경을 하나의 상부로 사용

OSSTEM[®]
IMPLANT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12로 3 오스템임플란트(주)

TEL: 02-2016-7000 FAX: 02-2016-7001 www.osstem.com